

소사벌

2022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7



평택문화원

소사벌

2022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7



2022년 4월 / 통권 제37호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신태식
위 원 박성복, 강기중, 김희경, 이형범, 홍인석
편집 오민영, 최치선, 황수근, 강하늘, 최희련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2년 4월 29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번호 031-655-2002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출판 나무기획 031-654-0104

© 2022 평택문화원 ISSN 1739-9556

- ※ 이 책의 게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평택문화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획특집 평택과 마을조사

- 04 마을, 기록으로 남기다
- 08 평택의 마을이야기
- 12 평택의 간척촌

평채우다

- 16 빛바랜 사진이야기
- 20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24 평택을 품은 이야기
- 28 여기는 평택이다
- 32 우물에서 길어 올린 평택이야기
- 36 진위 역사를 담다
- 42 오섬플렉스
- 46 평택백중난장굿
- 48 평택박물관 미리보기
- 52 여름향기 삽화전
- 56 평택현 관아터

택더하다

- 58 러일전쟁기 평택을 기록하다
- 62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 66 「4인의 독도 작가」展
- 70 직원이 강사이자 수강생
- 72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을 위한 첫 걸음
- 76 평택문화원 창립 68년 지상중계
- 80 제1회 아름다운 사진전
- 84 제9회 삼봉서화대전
- 88 4B YOUTH ART COMPETITION
- 90 소사별 화보
- 96 평택문화원 소개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보고서

마을, 기록으로 남기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평택문화원에서는 2014년부터 개발을 눈앞에 둔 마을을 우선으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을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조사자가 인문·지리, 구술조사 및 각종 사료를 수집하고 발굴한 자료들을 문서와 영상기록물로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는 1년에 한 번씩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렇게 발간한 보고서와 자료는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아카이브 기록관에 지역별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

삶, 터전을 기록하다

마을조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변화되고 사라지는 마을’이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와 마을, 사람들’을 주제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기록 중이다. 그 외에도 ‘전통의 읍치 또는 지방통치조직과 관련된 마을’(진위면 봉남리, 팽성읍 객사리, 원평동)을 주제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총 140여 개 마을을 조사했다. 다음은 연도별로 조사한 마을 현황이다.

〈연도별 조사 마을 현황〉

연도	읍·면·동	마을	비고
2014년 (9개마을)	포승읍	회곡리(3), 신영리(4)	황해경제자유구역(BIX포승지구)
	이충동	동령마을	도시개발 진행 중
	세교동	은실마을	도시개발 논의 중
2015년 (19개마을)	용이동(2), 소사동(3), 동석동(3), 칠원동(3), 합정동(1배미)		도시개발
	안중읍	현화리(2)	화양지구 도시개발 중
	현덕면	화양리(2), 운정리(3)	화양지구 도시개발 중
2016년 (23개마을)	현덕면	권관리(5), 기산리(3), 대안리(4), 신왕리(2)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논의 중
	진위면	가곡리(7-5), 마산리(4) 등 23개 마을	진위2,3 산업단지개발
2017년 (27개마을)	현덕면	장수리(1)	현덕지구 도시개발 논의 중
	포승읍	내기리(6-4), 도곡리(11-5), 원정리(10-5), 홍원리(7), 석정리(9-6)	자연마을 기본조사
2018년 (18개마을) 외 미군기지 관련마을	현덕면	방축리(2), 도대리(3), 인광리(7-5), 황산리(3), 덕목리(5) 등 18개 마을	자연마을 기본조사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함정리, 본정리, 안정리	미군기지로 사라지고 이전한 마을
	서탄면	적봉리, 장등1리, 신리, 야리, 황구지리, 금각리	
	신장동	구장터	
2019년 (10개마을)	진위면	봉남리(3)	진위현의 읍치
	팽성읍	객사리(6)	평택현의 읍치
	원평동	원평동	근대도시
2020년 (12개마을)	송탄동	도일동(4),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5), 모곡동	평택브레인시티 개발 진행 중
2021년 (12개마을)	진위면	하북리(4), 견산리(6), 신리, 야막리	진위4산업단지 개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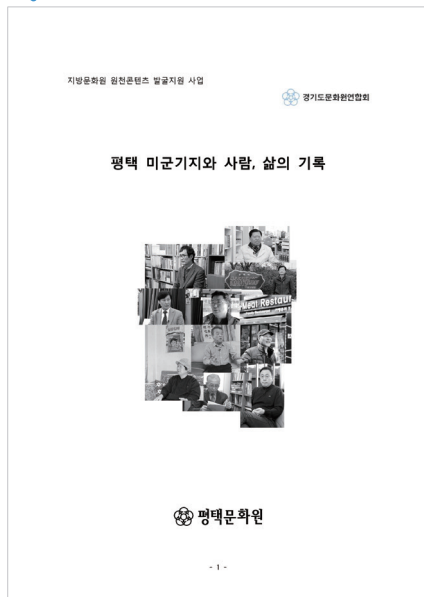
피우치이중계

성과로 본 마을조사

조사팀은 2015년 현덕면 운정1리 피우치마을에서 ‘피우치이중계’를 발굴했다. 이 자료는 1914년부터 2014년까지 현덕면 운정1리 피우치마을을 중심으로 대정, 글쟁이 마을사람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규약, 임원, 세입 및 지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발굴된 ‘피우치이중계’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개최한 ‘제3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2020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일제강점기 일본해군이 안정리에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배후시설로 썼던 방공호 중 선말산 말랭이 쪽 방공호를 발굴 조사했다. 이외에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의미 있는 성과는 ‘미군기지와 평택’이다. 평택의 미군기지 관련 마을조사는 2018년 김해규가 총괄하여 정리했으며, 김희식은 ‘송탄기지촌의 공간변화’(2018) ‘평택, 안정리, 캠프햄프리스’(2019) 등 두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으로 평택미군기지와 사람을 주제로 아카이브를 진행했다. 송탄과 안정리기지촌 사람들에 대한 10시간 분량의 기록물을 e-book으로 제작했고, 이를 편집해서 <평택 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이란 영상물을 평택문화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에 게시했다. 이런 성과들이 미군기지와 평택, 나아가 한·미역사문화 연구에 마중물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영상 및 사진 기록 작업은 최치선이 맡아 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부터는 드론을 활용하여 사라지기 전, 후 다양한 마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평택은 들이다’라는 기록사진전을 했다. 또한 동명의 제목으로 작사한 노래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평택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교과서에 수록됐다.

2014년 470쪽으로 출간한 보고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분량이 늘어 2021년에는 8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지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마을지, 읍면지, 시사 편찬 등 각종 자료 출판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도시개발, 도시재생 사업에 인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 e-book

기억을 전승하다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20여 명 연구자가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에 참여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조사대상 마을은 많은 의욕이 높은 기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질의 조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참여해 준 연구자들 덕분이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의 가치는 지대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시급성에 쫓겨 놓치고 왔던 그곳, 마을 사람들의 깊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발목을 잡는다. 한 연구자가 1년이든 2년이든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하나의 주제, 하나의 사건과 인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연구환경과 정책환경이 개선되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조사, 발굴, 전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소사별**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불완전하고, 기억은 기록돼야 완성된다'는 말이 있다. 오늘 기록하지 않으면 내일 기억되는 일은 미약하거나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를 들춰보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를 하는 이유이다.



현덕면 운정1리 피우치 마을조사



현덕면 운정3리 한상길 수의장 자택 인터뷰



현덕면 기산리 정수일 자택 인터뷰

평택의 마을이야기

덕암산 남쪽의 전통마을 도일동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석씨 천년, 소씨 천년, 원씨 천년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산을 의지하여 살았다. 산은 안온한 마을과 경작지, 풍부한 식수, 농업용수, 땔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전통 마을도 산을 의지하여 형성됐다. 도일동 덕암산(163.9m)은 무봉산(208m)과 함께 평택지역을 대표한다. 면적도 넓어서 동쪽으로는 진위면은산리, 북쪽으로는 지산동 동막, 서쪽으로는 부락산과 연결되고, 남쪽에는 도일동과 심사울들, 왕뒤들을 품에 안았다. 예로부터 덕암산에는 아흔아홉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에는 진위현 여방면에 속해 '여좌울'로 불렸고, 근대 이후에는

상리, 내리, 하리, 원도일로 구분하지만 조금만 골짜기 안으로 고개를 들이면 원당골, 사창이, 황새말, 셋골, 배나무골, 안골, 독처골, 부인터, 응골, 양산말, 중터말, 감장골, 암말, 각골, 운터말, 깊은골, 새말, 석비, 능말, 오리골, 등치골, 정골, 둔곡, 승지골, 가농골, 갈월, 요골, 산막골, 세당골, 큰여의실, 작은여의실과 같은 크고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덕암산은 어머니의 산이다. 세상을 포용하는 너그러운 품과 넉넉함이 있다. 그 넉넉한 품에서 수많은 가문들이 명문가(名文家)를 일궜다. 도일동에는 '석씨 천년, 소씨 천년, 원씨 천년'이라는 말이 전한다. 석씨, 소씨, 원씨



가 각기 1천 년을 세거했다는 말이다. ‘천년’은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 석씨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진주 소씨는 고려 말 개성운을 지낸 소을경 때 입향한 것이 확실하다.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혼인을 맺을 만큼 명문(名門)이었으며 조선 시대에도 유력가문이어서 원주 원씨, 수성 최씨, 전주 이씨 등 여러 집안들이 소씨 가문과 혼인을 맺고 평택지역에 정착했다. 승승장구했던 진주 소씨는 영조 4년(1728)에 발생한 무신 난으로 몰락했다. 그 뒤를 원주 원씨가 계승하여 오늘에 이른다.

학문과 무예로 이름을 날린 인물 많아

큰 산의 정기(正氣)는 큰 인물을 낳는다. 예로부터 덕암산 자락에서는 문무(文武)를 겸한 인물들이 많이 났다. 진주 소씨 가문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개성운을 지낸 소을경, 조선조에서는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소영,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소현손, 대사간을 지낸 소세량, 이조판서와 좌찬성을 지낸 소세양, 세자시강원춘방진사를 지내다가 연산군의 실정(失政)에 실망하여 낙향한 소수천,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소속, 부사직을 지낸 소빈, 제주 목사를 지낸 소흡이 그들이다.

원주 원씨는 고려 개국공신 원극유의 후손이다. 원극유



원균장군 유적지가 있는 내리마을



도일동 원릉군사우 앞 15공신 정문



덕암산과 도일동 상리

의 후손은 고려 때에도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여말 선조 원천석(元天錫), 원선(元宣)이 조선을 부정하고 고려에 충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도일동의 원주 원씨는 고려 말 판삼사를 지낸 원선(元宣)의 후손들이다. 원선은 이성계 일파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양주 송산에 들어가 평생을 숨어 살았다. 또 후손들에게도 조선에 협력하지 말 것을 유언하여 이후 100여 년 동안 후손들이 관직을 멀리하고 향촌에 은거하며 학문과 무예를 닦았다.

도일동 원주 원씨 가문에서 처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은 16세기 중반의 원팽수와 원준량이다. 원팽수는 무과에 급제하여 종부시(宗簿寺) 첨정을 지냈으며, 사촌인 원준량은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원준량은 균(均), 연(延), 용(壙), 전(填) 등 8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 가운데 장남 균(均)은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1592) 때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냈고 사후 선무공신 1등 원릉군에 녹훈되었다. 둘째 연(延)은 사마시에 합격한 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용인 햇골에서 왜군을 격퇴한 공(功)으로 연기현감과 적성현감에 제수되었고 후대에 충신 정문이 내려졌다. 원준량의 나머지 아들과 조카들도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무려 13명이 공신(功臣)에 올랐는데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도일동의 장구한 역사가 뒤흔들고 사라진 것은 1728년 무신 난의 영향이다. 무신 난에는 덕암산의 진주 소씨, 무봉산의 안동 권씨를 비롯해서 원주 원씨, 수성 최씨, 전주 이씨 등이 반란군에 동참했다. 결과 진주 소씨는 멸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원주 원씨, 수성 최씨, 전주 이씨도 큰 화를 입었다.



겨울에는 엿을 만들고 땃감을 팔아

근대 이후 도일동은 전형적인 농업지대로 남았다. 주민들은 산과 계곡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 근대 전후에는 도일천 중류지역을 개간하고 내리저수지, 팔용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을 확보하면서 농업이 발달했다. 농업은 발전했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했다.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이 증가했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먹이고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농민들은 농가 부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꿨다.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끼꼬기와 가마니치기, 길쌈을 많이 했지만 도일동에서는 땃감 장수와 엿장수를 많이 했다. 땃감은 도일동 상리 사람들이 많이 했다. 상리에서 서정리장이나 평택장까지는 10~15리가 넘었다. 나무꾼들은 나뭇짐을 지거나 우마차에 싣고 하루에 두 번씩 장(場)을 오갔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우마차의 경우에는 쌀 한 말을 벌었고 걸어서



도일동 전경

다닌 사람들은 3~4되를 벌었다. 옛장수는 하리 사람들이 많이 했다. 옛은 땀감도 많이 필요했지만 밤새 저어줘야 해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을 설치가며 만든 갯엿은 여러 번 늘인 뒤 벽에 구멍을 뚫어서 잡아당기면 하얀 엿가락이 되었다. 이것을 펄택장이나 서정리장에 팔았다.

큰 산과 계곡을 끼고 살다 보니 도일동에는 문화유산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상리 중간말은 과거 진위군 여방면의 중심이었고 사창 마을에는 진위현의 사창이 있었다. 안골과 독처골 갈림길에는 의병장 원연과 그의 아들 원사립, 후손 원길상의 '양세충효정문'이 있으며, 중간말에는 이성부충절정문이 있다. 내리 각골에는 원릉군 원균의 묘와 사당이 있고 능골에는 수성 최씨 입향조이며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화원 최경의 묘가 있다. 도일동 상리 산신제는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지며 산신당 아래에는 당샘과 마을사찰 덕암선원이 있다. 사창마을 동쪽 구릉에는 향나무 '비보림'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며 상리와 내리에서는 정월 대보름 줄다리기도 거행했다.

역사와 민속은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전승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도일동은 역사와 민속의 보고다. 사라지기 전 기록하고, 소멸되기 전 전승과 보존해야 한다. **소사릴**

도일동 상리
덕암선원과 산신당 원경



도일동 상리 양세충효정문



도일동 상리 벳터 향나무

평택의 간척촌干拓村

양진아 전북대학교 살·살·살·만평포구원 진평포구원

| 기획특집 | 평택과 마을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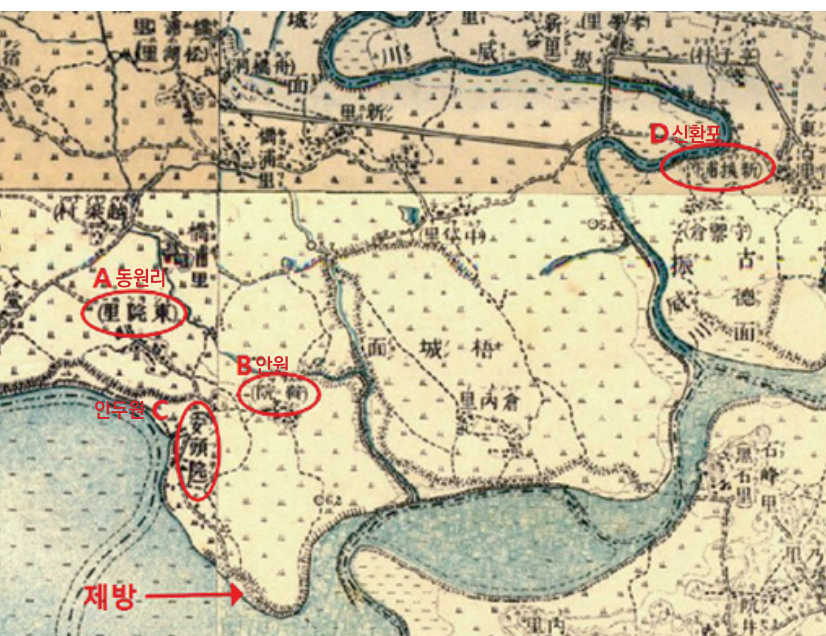
평택시 평택4리 만평포구

간척촌은 간척 이후 새롭게 조성된 촌락을 뜻한다. 대규모 간척을 통한 경지의 확장은 인구의 이동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새로운 촌락의 형성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남양간척지와 함께 조성된 신규 정착촌은 간척촌의 대표적인 예이다. 1950년대 이후 있었던 피난민들의 정착사업은 주로 간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간척지와 함께 정착촌이 형성되었다. 평택 지역에도 이와 같은 피난민 정착촌이 있다.

한국 역사에서 간척으로 인한 새로운 촌락의 형성은 조선 후기에도 존재했다. 한국의 전통 촌락은 대체로 구릉과 골이 접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간척촌은 대부분 구릉 끝부분에 조성되었으나, 간척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과거 갯벌이었던 들 가운데에 촌락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간척촌은 경관상으로 기존 촌락과 확연히 구분된다. 황해도 및 평안도 연안, 전북 호남평야 및 충남 예당평야 등은 들 가운데 위치한 간척촌들이 보고된 지역으로, 조성 시기는 20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해로 유

입되는 안성천과 발안천 변에 있는 평택 지역 역시 역사적으로 간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1910년대 지형도에서 안성천과 접한 오성면, 고덕면, 팽성읍 지역에서도 평야에 조성된 촌락들이 확인되는데, 이 촌락들은 간척지 조성과 함께 형성된 간척촌일 가능성이 높다. 1910년대 지형도에서 안성천 북쪽에 위치한 당거리와 창내리, 교포리, 신리, 안화리, 동고리, 궁리 일대를 보면 곳곳에 제방이 쌓여있으며 들판 가운데 촌락들이 들어서 있다. 이 촌락들은 간척촌의 전형적인 경관을 띠고 있다. 이 중에는 동원리(東院里), 안원(鞍院), 안두원(安頭院) 등 ‘원’이 들어간 지명들이 있다. 이때의 ‘원’은 조선시대 바닷물이나 하천의 물이 넘치는 것을 막는 제방을 의미하는 ‘언(堰)’이 변형된 것으로, 이 지명들은 그 자체로 간척과 함께 조성된 촌락임을 보여준다. 동고리에 속하는 신환포(新換浦)라는 지명 역시 새로 물길을 돌려 조성된 마을임을 나타낸다. 신규 간척지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간 초기 불안정한 농업 생산 및 재해 극복, 식수·연료·건축재료 등 식생활 및 주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공급, 마을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사회관계의 구축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특히 과거 갯벌이었던 들 가운데 조성된 촌락에서는 식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다.

1950년대 이후 조성된 평택 지역의 피난민 정착촌과 남양간척지 정착촌은 구릉에 위치한다. 피난민 정착촌은 한국 정부와 해외의 원조기구가 합동으로 추진한 난민정착사업을 통해 조성되었다. 당시 난민정착사업은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원조 식량을 노임으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간척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지를



1910년대 오만분의 일 지형도 오성면 일대
A 동원리 / B 안원 / C 안두원 / D 신환포



안성천과 진위천이 만나는 합수부, 오성면 오성들 전경(왼쪽)와 고덕면 동고리(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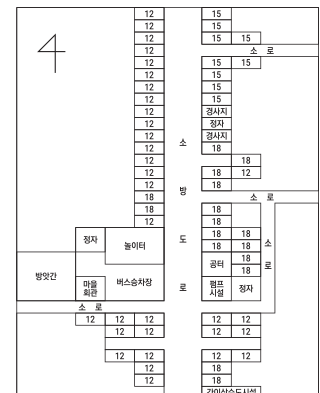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호되었다. 평택 지역에서 피난민 정착촌으로 새로 조성된 촌락으로는 청북읍 고잔6리 혁명촌, 현덕면 권관4리 가사 등이 있다. 혁명촌은 1950년대 웅진 사람들이 들어와 형성된 곳이다. <고잔사업소>와 <농골사업소> 2개의 사업소에서 35만 평이 넘는 간척지를 조성하였다. 5·16 이후에 두 사업소가 합쳐져서 혁명촌으로 불리게 되었다. 권관4리 가사는 1960년대 기산리 앞바다 간척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완공 후 피난민들이 불하받은 토지를 팔고 많이 나가 현재 남아있는 피난민 가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홍원1리 외원은 기존에 있던 마을인데, 1950년대 중반 연백 출신 피난민들이 간척사업을 통해 정착하면서 거주 호수가 증가하였다. 이곳은 <연백사업소>라 불렸는데, 1955년에 황해도 연백 출신 피난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들은 사업소 사무실이 있었던 외원 마을에 대부분 정착하였으며, 일부가 석정6리와 청북쪽에 자리를 잡았다.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간척촌에서 주민들의 이출입이 많았던 데에는 간척사업의 특징이 작용하였다. 방조제 축조에 성공하여 그 내부에서 안정적인 생산물을 확보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과

정에서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업장이 많았으며, 성공을 보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정착 초기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었던 간척촌의 이주민들은 인근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타지로 나가 일을 구하기도 했다.



1970년대 간척촌 원형이 남아있는
홍원4리 만석동 전경

1970년대 간척촌 홍원4리
촌락 공간구조



포승읍 원정4·5·6리, 홍원4·5·6·7리, 청북면 고잔7리는 1970년대 남양간척지 개발과 함께 정부가 이주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성한 촌락이다. 1973년 남양방조제 완공으로 1,211ha의 농지가 조성되었다. 정부는 남양간척지 주변에 이미 정착한 난민, 대청댐 수몰민, 대한반공청년회, 국가보훈대상자, 서울시 철거민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며, 나머지 농토는 일반 공모를 통해 분양하기로 하였다. 평택 지역에는 대청댐 수몰민들이 정착하였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은 충북 청원, 보은, 옥천, 충남 신탄진 등에 분포해있었다. 정부는 수몰민 이주대책의 하나로 남양간척지 이주를 계획하고 1976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일간 신문에 입주 요강을 발표하여 입주 신청자를 받아 신청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였다. 수몰민의 이주는 수몰 지역의 한 마을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수몰민 중에 남양간척지의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여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정리와 홍원리로 들어온 수몰민들의 고향은 옥천, 청원 등으로 다양했다. 대청댐 수몰민들은 1977~79년 사이에 많이 입주하였다. 정착 초기부터 분양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입주 주민 중에는 타지

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정착촌 조성을 위해 정부는 거주지가 들어설 터를 매입하고 조립식 건물로 주택을 지어서 이주민들에게 분양하였다. 신규 촌락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던 까닭에 여느 농촌과 달리 도로와 주택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었다.

남양간척지 정착촌의 대부분은 지명에서부터 기존 마을과 구분되었다. 원정4·5·6리는 2지구, 3지구, 1지구라 하였는데, 이 중 5리와 6리는 마을 조성 당시 주택을 건설한 회사의 이름을 따라 쌍용과 한일이라고도 부른다. 홍원리의 경우 5리는 2지구, 6리는 3지구, 7리는 1지구로 불린다. 남양간척지 정착촌은 마을 명칭뿐 아니라 마을 내 공간 배치 등 여러 면에서 기존 마을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바둑판처럼 규칙적으로 배열된 마을 내 공간 배치는 인근의 농촌과는 비교되는 것이었다. 신규 촌락의 새로움은 마을 명이나 경관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여러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출입 가구 수 역시 많았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남양간척사업은 수리체계를 완비한 바둑판 모양의 대규모 농업 단지라는 새로운 경관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농촌을 만들었다. **소사벌**



홍원4리 유래비

빛바랜 사진이야기 / 마을 행사



밤개울 한가위 잔치 2008년 9월 13일 / 울포2리 마을회관(평택시 고덕면 울포2리)

지금은 고덕국제신도시에 편입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평택시 고덕면 울포리 밤개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덕국제신도시로 개발되기 직전인 2008년 9월 13일 추석 하루 전날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들었다.

고덕면 울포리는 남원양씨와 은진송씨, 순흥안씨, 밀양박씨가 주요 성씨를 이루며 살아온 마을로 일제강점기

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자연마을인 밤개울과 방죽말이 통합되어 울포리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울포2리 밤개울 주민들은 400여 년 전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을 가슴에 담고 마을회관 창고에 보관해 둔 농악기를 꺼내 회관 앞마당에서 풍물을 두드렸다. 지난하게 살아온 세월도, 이주해서 살아가야 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오늘 하루만큼은 흥겹게 울려 퍼지는 풍물 소리에 훌훌 털어버렸다.



돼지 잡아 잔치 하고 2008년 9월 13일 / 울포2리 마을회관(평택시 고덕면 울포2리)

밤개울은 고덕면 울포리 3개 행정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울포2리로, 옛날부터 밤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서정천이 흘러 포구가 발달했다고 하여 밤개울(栗浦)로 불렸다.

고덕면 울포2리는 130여 호에 달하는 가구가 모여 살면서 매년 한가위가 되면 돼지 한 두 마리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다. 2008년 추석 전날에도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마을 남성들이 직접 돼지를 잡아 살코기는 구워먹고, 고기와 내장 등 부속물을 조금씩 나눠 집집마다 잔치

를 준비했다. 지금은 마을에서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이 현행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위생 문제나 번거로움 때문에 안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잔치에서는 빠질 수 없는 큰 일(?) 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비닐이나 포장재가 발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소나 돼지를 잡으면 집집마다 배분한 고기를 새끼줄로 묶거나 신문지에 돌돌 말아 각 가정으로 가져간 후 부엌에 매달아 놓고 먹던 추억의 한 장면도 떠오른다.



온 가족이 모여 송편 빚기 2008년 9월 13일 / 울포리 양건모 씨 가정(평택시 고덕면 울포리 228번지)

소반에 오른 다양한 색상의 송편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한가위 전날 여성들의 송편 빚는 모습이다. 설날이나 한가위에 준비하는 음식들은 과거에는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고, 남녀 구별 없이 온 가족이 모여 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송편은 한가위에 준비하는 대표적인 음식의 하나로 햅쌀과 부재료로 만드는데 송편 안에 넣는 소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또는 취향에 따라 팥, 깨, 잣 등 다양한 재

료를 사용한다. 송편을 찰 때는 솔잎을 깔아 송편끼리 엉겨 붙는 것을 막아 주고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였다.

고덕면 울포리 양건모 씨 가정의 송편 빚기는 사촌들까지 함께 모여 대여섯 개 채반 가득 송편을 만들어 서로 나눈다. 송편을 만드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한가위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에 모이는 식구와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또, 송편을 만들면서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펼쳐놓는 즐거움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남원양씨 조상 묘역 성묘 2008년 9월 14일 / 울포리 남원양씨 묘역(평택시 고덕면 울포2리)

고덕면 울포리는 남원양씨가 웅기종기 모여 살아왔다. 특히 울포2리에는 남원양씨 南原梁氏 문양공 주부공과 15가구 가량이 400여 년 씨족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들은 조상 묘역을 관리해오다 2000년 울포2리 종산에 납골묘 형식으로 울포종친납골묘를 조성해 선조들을 모셨다.

정부의 고덕국제화지구 개발계획 발표로 고덕면 울포리 일원이 고덕국제신도시에 포함되어 개발되기 직전인 2008년 9월 14일 한가윗날 남원양씨 후손들은 가정마다 차례를 마친 후 울포종친납골묘에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

한 햇과일과 곡식을 조상에게 바치는 성묘를 지냈다. 400여 년 내려온 고덕면 울포리에서의 성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아쉬움에 이날 성묘에는 50여 명의 후손들이 모였고, 성묘를 마친 후에는 음식을 나누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남원양씨 후손 일부는 2015년 고덕면 당현5리로 이주해 살고 있으며, 그들의 터전이었던 울포리는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중앙에 위치한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로 개발되고 있어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변모하였다. **소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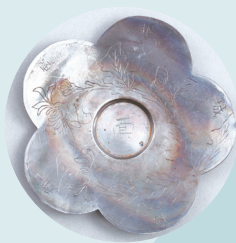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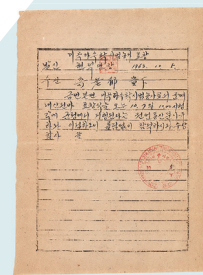
글 · 사진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Memory in Pyeongtaek 대표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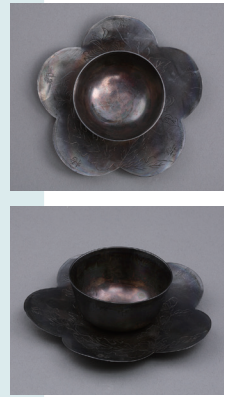
— 평택 밖 평택유물 —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사

평택과 연관이 있는 유물은 평택에만 있지 않다. 여러 이유로 외부 박물관이나 기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평택 밖 평택유물'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평택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니 앞으로 박물관 건립 이후 수집된 유물과 함께 '평택 밖 평택유물'이 평택시민과 만나길 기대한다.



은잔(銀盞) 2점 @국립민속박물관



잔의 구연부에는 ‘平澤警察署有志一同(평택경찰서유지일동)’과 꽃잎 모양의 잔받침에는 전체적으로 매화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잔의 구연부에는 ‘安仲市內有志一同記念盃(안중시내유지일동기념배)’와 꽃잎 모양의 잔받침에는 전체적으로 국화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각 테두리에는 ‘振威郡梧城(진위군오성)’ 중앙에는 ‘面(면)’이 차례로 새겨져 있다.

각종 농촌계몽용 전단지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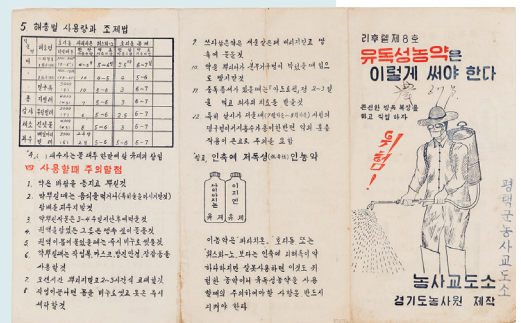
해방후 ‘평택군농사교도소’ 도장이 찍혀 있는 농촌계몽용 전단지로 경기도농사원교도국이 발행하였다. 총 6면으로 가로로 2번 접힌 직사각 형태이다. 기생충을 없애자, 유독성농약은 이렇게 써야 한다, 비료는 땅에 알맞게 주자 등 농촌 계몽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생충 안내 리플렛



비료 안내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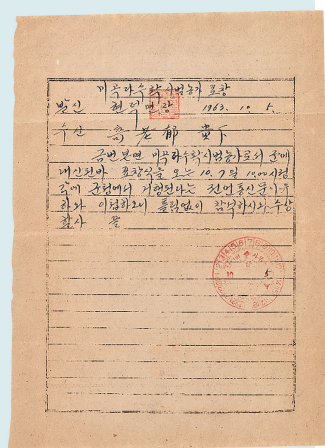


농약 안내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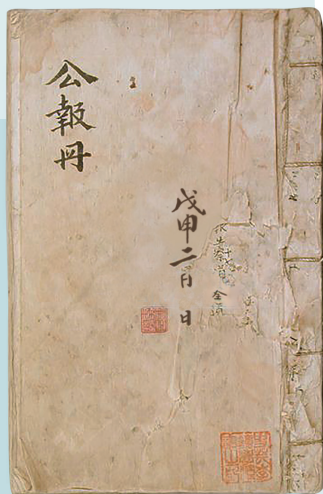
평택현 이성의 준호구 @경기도박물관

건륭 36년(영조47년, 1771년)의 평택현의 거주하고 있는 이성의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 준 문서이다.



미국 다수확 시범 농가 표창식 안내 문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63년 10월 5일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사무소에서 기노옥(奇老郁)에게 발신한 문서로 미국 다수확 시범 농가 표창식이 군청에서 개최된다는 내용 등이 수기되어 있다. 상단에 현덕면장의 직인과 하단에 '현덕면사무소 발송' 등이 찍혀있다.



공보책 @독립기념관

국한문, 필사본으로 1908년 2월 11일 평택군수가 새로 부임한 후의 부임보고를 시작으로 당해 연도 3월 30일까지의 공보(公報), 즉 평택관청이 관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방중의 지석 @밀양시립박물관

평택현감을 지낸 통정대부 이방중의 지석(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판석)이다. 지석에는 이방중의 생몰년월일, 행적, 묘의 좌향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문장의 말미에는 만력 17년(선조 22년, 1589년)이 새겨져 있다. 경상남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국가귀속유물 @국립중앙박물관

매장문화재는 발굴조사 후 출토된 유물은 국가로 귀속되며, 평택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등으로 귀속되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2021년 ‘평택시 국가귀속유물조사 용역’을 통해 이러한 유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소사별**

평택을 품은 이야기

바다 속에서 발견된 평택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강하늘 문화사업부 학예사



평택 심복사 대적광전 안에 봉안된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심복사는 현덕면 광덕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사찰입니다. 심복사에는 법당인 대적광전(大悲光殿)을 비롯해 중건한 지 수백 년이 된 요사채, 주지실 등이 있습니다. 법회가 행해지는 대적광전에는 보물로 지정된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이 비로자나불좌상은 심복사 창건 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설화를 통해 우리 고장의 보물인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평택 앞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세 명의 어부들은 던진 그물을 올리는 중 그물이 팽팽해지고 무거워져 큰 기대를 품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당겨보니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윗덩이가 떠올랐습니다. 어부들은 재수가 없다며 바윗덩어리를 물에 다 넣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그 돌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어부들은 그물에 걸린 돌을 배 위로 끌어 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인자한 미소를 품고 있는 거룩한 부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어부들은 얼른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어부 중 한 명이 어젯밤 꿈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꿔는데, 돌부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은 심복사다’라고 말씀하셨어”

세 어부는 ‘심복사’를 찾아 나섰고 지금은 흔적이 없어진 옛 절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게 위에 올려두었던 불상이 옛 절터에 이르자 갑자기 무거워져 꿈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어부는 이곳이 부처님을 모실 곳인가보다 생각하고 그곳에 불상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불상을 모실 불당이 없어 걱정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손 모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두 팔은 몸에 꼭 붙인 채 가슴 앞에서 오른손이 왼손의 검지를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의 손 모양을 지권인(智拳印)이라고 합니다. 지권인의 의미는 오른손은 부처를, 왼손은 중생을 상징하며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깊은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그날 밤 어부는 또 꿈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바닷가에 나가보면, 난파된 배가
있을 것이니 그 재목을 써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또
한 바닷가에는 검은 소가 있을 테니 그들을 끌어다가
법당을 짓도록 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세 어부는 날이 밝자마자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난파된 배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
었고 멀리 검은 소 세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
었습니다. 어부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꿇어 절을
올리고, 검은 소 세 마리와 함께 재목을 옮겼습니다.
여러 날을 고생한 끝에 불당이 완성되었고 바다에서
건진 부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무사히
모시고 나니 절을 짓는데 큰 공을 세운 검은 소들이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보살이 절을
세우기 위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를 위한 무덤을 만들고 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심복사 전경

심복사 창건 당시 목재를 운반했던 세 마리의 소를 위한 무덤으로
우(牛)보살을 기리며 매년 무덤 앞에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소사벌**



심우총 유래비



심우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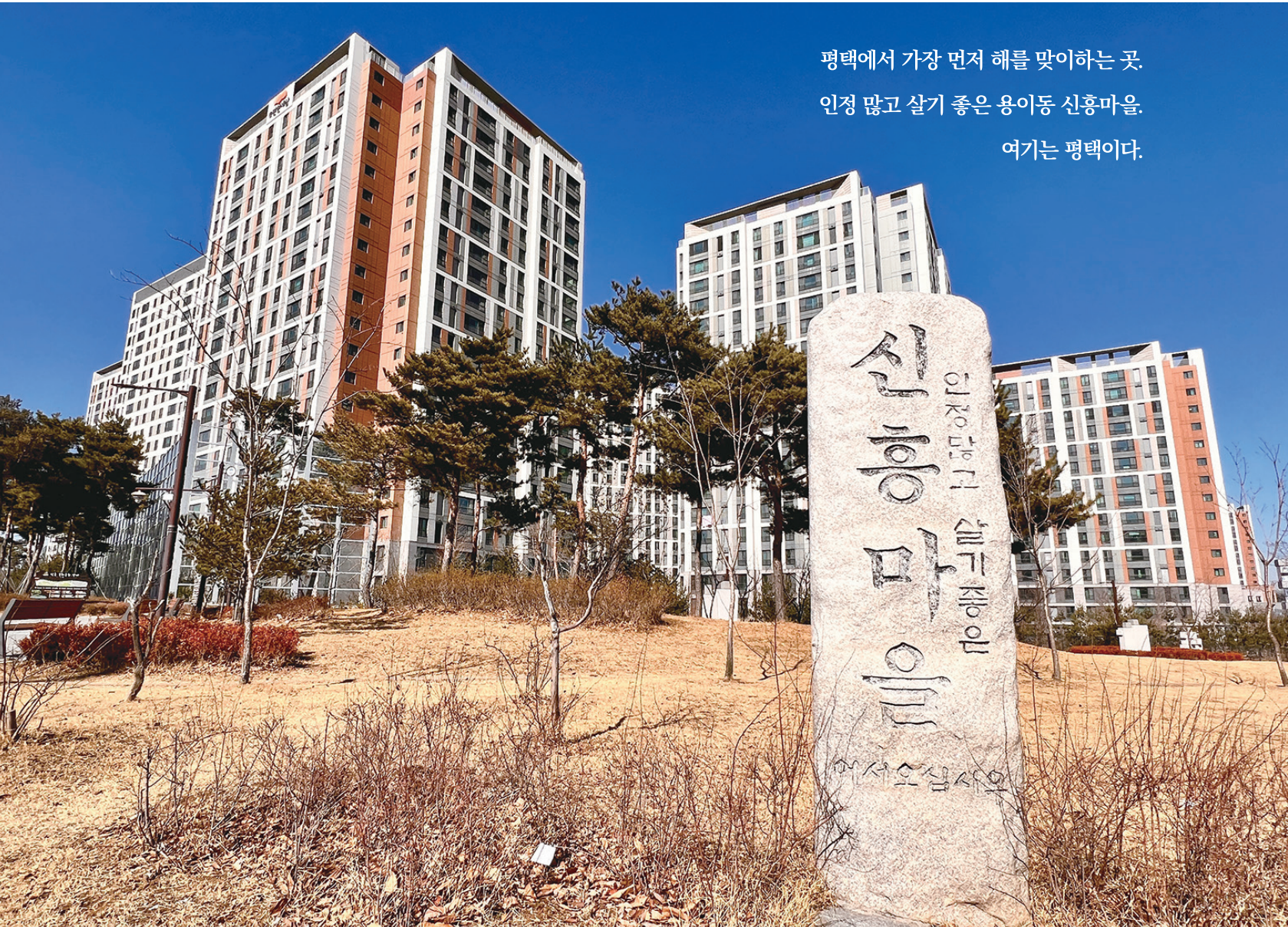


심우총 성묘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평택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곳.
인정 많고 살기 좋은 용이동 신흥마을.
여기는 평택이다.



용이동 신흥마을 표지석



2010년 봄 신흥마을 전경

개발 전 신흥마을에서는 죽백동까지 이어진 배 과수원과 그 뒤로 백운산과 고성산이 보인다.

7년이 지난 2022년에는 배 과수원 대신 아파트와 빌라가 자리잡았다.



2022년 2월 신흥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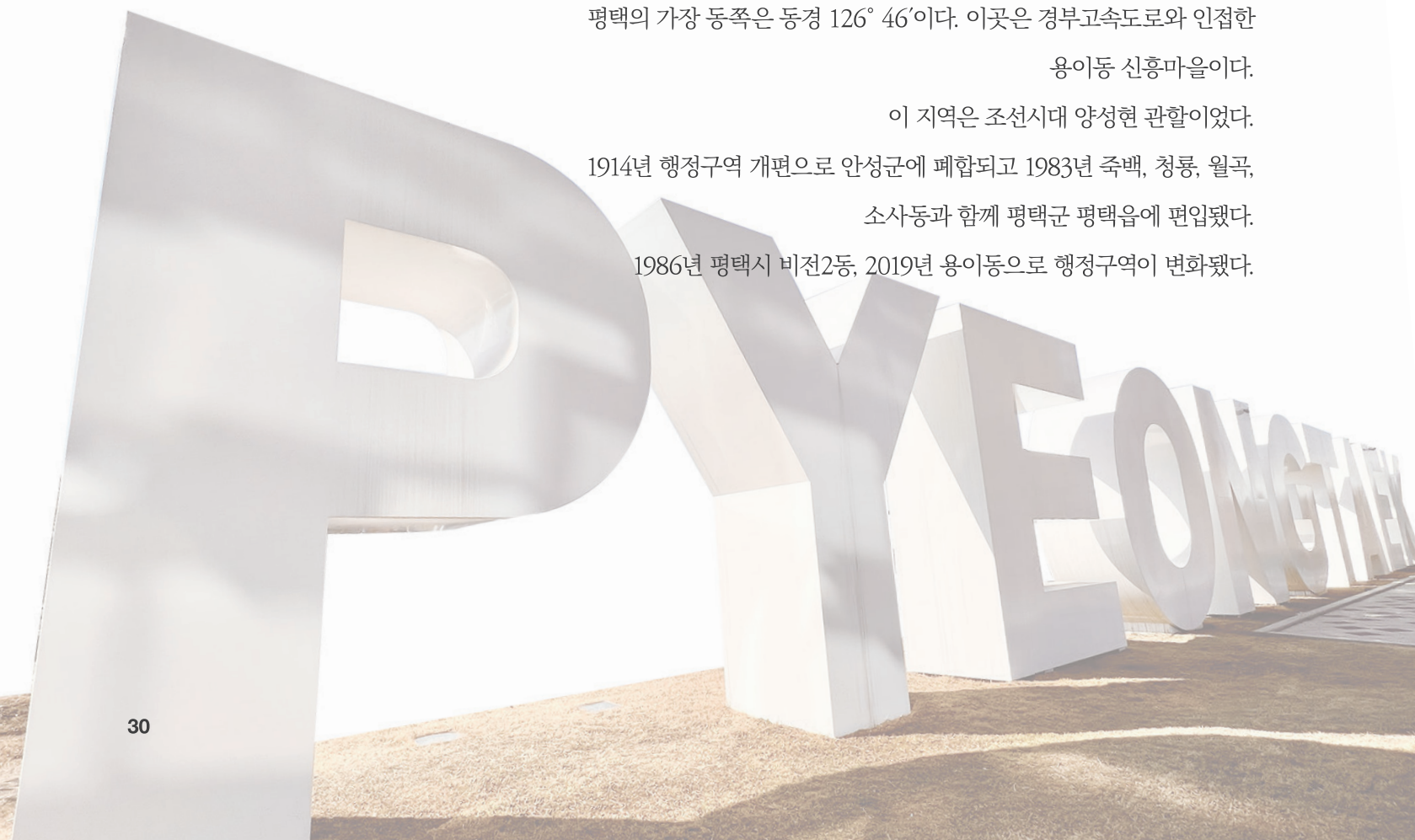
경부고속도로 안성IC를 벗어나면 반갑게 맞이하는 평택조형물

평택의 가장 동쪽은 동경 126° 46'이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용이동 신흥마을이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양성현 관할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성군에 폐합되고 1983년 죽백, 청룡, 월곡,
소사동과 함께 평택군 평택읍에 편입됐다.

1986년 평택시 비전2동, 2019년 용이동으로 행정구역이 변화됐다.





경부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한국전쟁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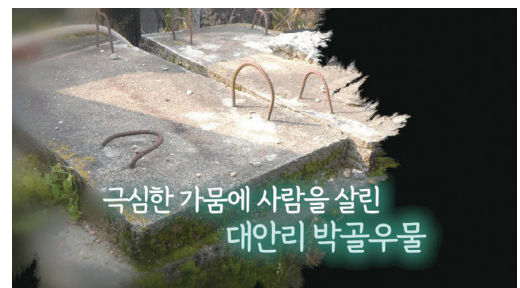


용이동 일대 행정지도

국도 38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신흥마을과
우측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가 있는 곳이 평택의 가장 동쪽이다. **소사릴**

국도 38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신흥마을





평택문화원에서는 ‘우물로 살펴본 평택이야기’로 경기문화재단 2021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사업은 우물과 평택 역사문화콘텐츠를 결합하여 ‘평택의 문화유산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총 7편의 영상과 영상 제작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이 영상은 평택문화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



평택의 문화유산 ‘우물’ 이야기



우물에서 길어 올린 평택이야기

이선민 자유기고가



내 고향 우물등치

이유는 잘 모르겠다. 바람이나 쐬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문득 고향마을을 생각했다. ‘예상 소요시간은 20분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 손이 민망하다. 참 가까운 거리인데, 언제 마지막으로 방문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 고향마을은 곡식을 까부르는 키클을 닮았다.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낮은 언덕을 넘으면, 제법 너른 평지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평지를 두고 좌우로 늘어선 능선에는 안말과 건넌말이 사이좋게 자리를 잡았고, 두 마을이 서로 바라보는 지점, 편평한 논밭이 시작하는 자리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이곳을 ‘우물등치’라 불렀다. 커다란 은행나무가 옆에 있어서인지 썩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큰 나무 밑동마냥 펴퍼짐한 우물등치는 풍수를 전혀 모르는 내 눈에도 우리 마을의 ‘혈’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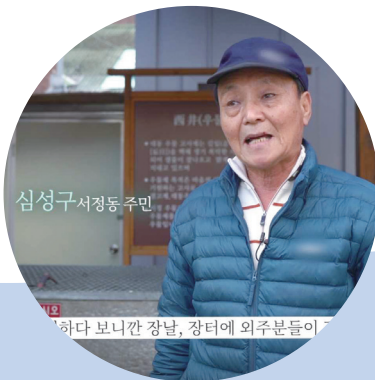
“여기가 내가 태어난 마을이야” 새로 조성한 빌라 단지를 끼고, 마을 입구 언덕을 넘으며 아내에게 말한다. 캄캄한 밤에 장난기가 발해서 동생을 두고 혼자 뛰어간 일, 우물등치에 빠진 아랫집 재건이를 고추밭에 쓰려고 빼놓은 전깃줄을 던져 살린 일, 논 한구석에 짚풀을 엮어다가 그릴듯한 ‘기지’를 짓고 온종일 놀았던 일... 언덕을 넘자마자 까맣게 잊고 지낸 어린 시절 기억이 마법처럼 되살아난다. 고향이란 그런 것 같다.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의 기원, ‘나’라는 정체성을 만든 소중한 땅.

그러나 고향에도 무심한 세월은 흐른다. 언덕 밑 마을회관 자리엔 반듯한 빌라가 생기고, 농사짓던 평지에는 영어 유치원이 들어섰다. 알록달록 유치원 담벼락을 지나, 우물등치로 향한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길한 예감은 대부분 맞다. 큰 줄기를 베어낸 은행나무와 흔적도 없이 메운 우물등치를 보자 들뜬 마음이 가라앉는다. 아내가 슬그머니 내 손을 잡는다. 비로소 돌아본 고향마을은 조금 낯설다. 우연히 서랍장에서 발견한 조개껍데기를 보며 그 여름 밤바다를 추억하듯, 우물등치는 내 고향마을 이야기가 시작하던 곳이었음을 그제야 깨닫는다.



김해규 평택인문

삼남대로라는것은 글자 그대로 삼남



심성구서정동주민

하다 보니깐 장날, 장터에 외주분들이



대안리 마을주민

(우물물) 열세 집이 같이 팎겨든

‘평택의 문화유산, 우물’을 보며 다행이란 생각이 먼저 들었다. 마을주민의 무사 안녕을 위해 우물을 보존한다는 서정동 마을 심성구 어르신 말씀이 옳다. 잘 보존한 서정동우물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질까. 아직 맑은 물을 품

은 우물은 마을 사람의 추억을, 지역의 이야기를 언제든 길어올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자, ‘물의 도시’라는 지역브랜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자원이다. 그래서 평택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소재로 우물을 정한 선택은 참 현명하다.

문화재 文化財 명사

1.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2. 문화재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말

우물이 품은 가능성

우리는 막연하게 문화재를 소중한 물건, 지켜야 할 유산이라 생각한다. 정말 그런가. 답은 ‘문화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듯하다. 국어사전은 문화재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 만약 우리가 후자의 개념으로만,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것만을 문화재라 여긴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의 폭은 굉장히 좁아진다.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인삼밭 한가운데 놓인 대안리 박골우물은 문화재인가. 아닌가. 법에 따른 기준으로만 문화재를 이해한다면, 대안리 박골우물은 문화재가 아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2년, 박골마을 열세 가구가 힘을 합쳐 우물을 파고 삼 년간 이어진 가뭄에도 마을사람의 생명을 지킨 소중한 역사를 담고 있지만, 결국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 고향마을처럼 아무렇지 않게 수백 년 묵은 우물을 메우고, 마을을 지킨 노거수를 베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평택의 우물은 지역문화라는 단어와 등치관계가 아닐까 싶다. 우물을 지키는 일은 곧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일과 같다. 매년 정월대보름 우물제사를 지내는 오룡동 마을 사례를 보자. 오룡동 우물과 우물제사는 박제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지역문화 그 자체이다. 비록 누군가 문화재로 ‘등록’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을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물은 오룡동 마을의 가장 소중한 문화자원이 된다.



오룡마을 우물 촬영현장



오룡마을 우물 인터뷰



안재홍 고택 우물 촬영현장

내 딸아이를 데리고 잘 보존한 칠원동 옥관자정을 보며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다. 안재홍 고택의 우물을 보며 멀게만 느낀 역사적 위인도 결국 우리 마을에서 우물을 마시며 살았던 한 사람의 주민이었음을, 서정동우물에서 퍼낸 물로 상설시장에서 국밥을 끓이고, 신장동우물을 마시며 쓰린 속을 달랬을 기지춘 사람들의 삶을 내 딸아이가 기억하길 바란다. ‘평택의 문화유산, 우물’을 보며 더 많은 사람이 평택의 과거를 추억하고, 후대의 평택사람이 끝없는 이야기를 길어 올리길 기대한다. **소사별**

진위 역사를 담다

진위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일동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인 옛 진위현 관아 터에 진위역사관을 조성하였다. 진위역사관은 경기도코뮤지엄사업과 평택시주민참여예산, 진위면주민자치회와 약진회의 기금이 모여 만들어진 평택의 첫 역사관이다. 역사관 조성과정에서 평택문화원과 진위면행정복지센터·진위면주민자치회가 함께해 의미가 더 깊다.

진위역사관은 진위의 역사와 읍치, 삼남대로 등 진위의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여 평택과 진위를 알아갈 수 있는 교육공간이다. 진위역사관은 단순히 전시를 관람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평택 학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진위초등학교 학생의 눈에 비친 진위역사관은 어떤 곳이었을까?

진위역사관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61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앞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토, 일, 공휴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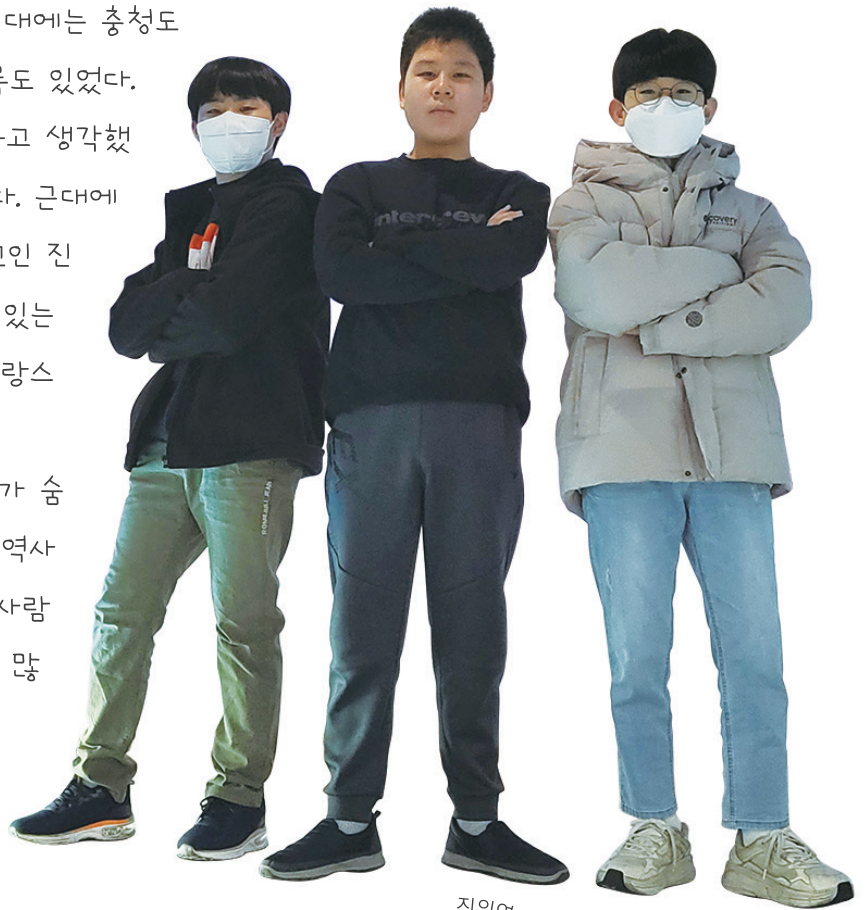


진위역사관 내부

진위면사무소에 수상한 건물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려 한걸음에 가보니 흰색에 낫선 건물이 보였다. 들어가 보니 그곳은 우리 진위에 역사를 담은 진위역사관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진위면의 발전과정 이였다. 진위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왔다. 진위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진위의 시초인 부산현이 설치되었으며, 그 후 757년에는 부산현을 진위현으로 개편하였다는 기록을 보았다. 이제야 아는 이름이 나오는 느낌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충청도에 속했던 진위현이 경기도로 속해졌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동안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라고 생각했 었는데, 예전에는 충청도였다니 새삼 놀라웠다. 근대에 들어서는 1899년, 평택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인 진 위공립소학교가 개교하였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평택 역사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니 자랑스 러웠다.

이처럼 진위면에는 내가 몰랐던 오랜 역사가 숨 어 있었다. 이 동네에 살면서도 우리 지역의 역사 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다른 사람 들도 진위역사관에 와서 자신이 아는 내용이 많 았는지, 모르는 내용이 많았는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이준복(진위초 6학년 1반)



진위역사관을 답사한 진위초 학생 일동



평택의 첫 공립근대학교 진위초등학교

진위공립소학교(현 진위초등학교)는 1899년 2월 진위군 현내면(현 진위면 봉남리)에 3년제로 개교하였다. 평택에서는 최초이자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개교한 곳이다. 당시 진위는 매우 작은 고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중요성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반영되어 이른 시점에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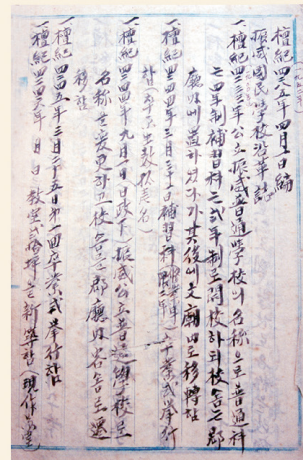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학술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진교일기는 '진위학교 일기'라는 뜻으로 당시 진위공립소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직원의 일기(1907~1909년)이다. 이를 통해 당시 공립학교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시대의 풍속과 사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진위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야외수업/진위천(1933년)



진위국민학교 가을 대운동회(1956년)



평택교육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진위국민학교 연혁지



진위국민학교 전경(1967년)

내가 다니고 있는 진위초등학교에 대한 글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진위초등학교는 역사가 참 많은 학교였다. 진위초등학교는 1899년에 개교하였으며, 현재 약 120년이 넘는 정도로 오래되었고 6·25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겪은 학교이다. 평택에서는 최초이자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개교한 곳이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진위초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당시 학교에는 일본인 선생님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학생들

을 가르쳤다는 생각하니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선배들의 용기가 정말 놀라웠다.

하지만 이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위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갈수록 텅 빈 교실도 늘어나고, 매년 신입생 숫자도 점점 줄어간다고 한다. 진위역사관을 시작으로 우리 학교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양예성(진위초 6학년 1반)

발굴된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삼국시대 토광묘에서
는 고리자루칼, 짧은목항아리 등이 출토되었으며, 고려부터 조

지금까지 나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고 있었을까? 내가
지금 살고있는 땅 밑에서 과거에는 몇사람들이 살아갔다고 생
각하니 왠지 모르게 신비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지금 살고있는
곳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다.

[illegible]

따라서 삼남대조에 속한 진위에는 많은 사람이 오갔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낸다는 글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삼남대조에는 춘향이 과거 길에 나선 이몽룡을 애타게 기다리던 길이자 앞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으로 한 달음에 달려갔던 길이라고 적혀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춘향전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내가 살고 있는 진위면이라니 놀라웠다.

[illegible]

진위역사관 청동인장복제

진위면 가곡리 발굴조사 중 고려시대 무덤에서 청동인장을 발굴하였다. 청동인장의 손잡이 부분에는 사자와 같은 짐승이 앉아있는데, 눈은 작고 콧구멍이 크게 도드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본래 인장은 끈을 매 허리에 차고 다니며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인장 바닥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다.

진위면 가곡리에서 발굴된 청동인장은 국가 귀속 원칙에 따라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소장중이다. 평택문화원에서는 진위에서 발굴된 유물을 진위역사관에 전시하기 위해 복제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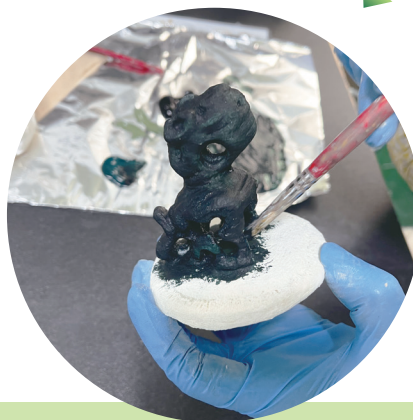


3D 스캔 및 데이터 편집



후가공 및 컬러마감

3D 프린트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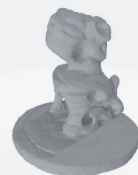


복제품 사진촬영





복제품은 총 2개로 실제 청동인장의 1:1 사이즈인 4cm와 1:2 사이즈인 8cm를 만들어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소사릴**



다섯가지 즐거움이 있는 오섬플렉스

오섬플렉스 운영센터 홍보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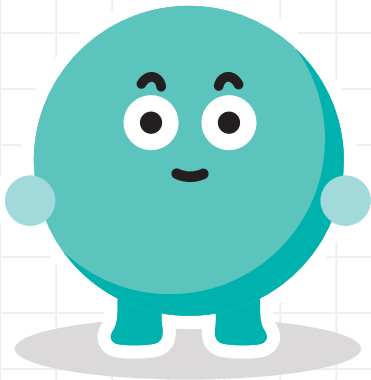
오섬플렉스(5SOMEPLEX)의 의미는 AWESOME PLEX “놀라운 복합시설”이라는 단어에서 상징화 하였다. ‘어섬’이라는 발음을 ‘오섬’으로 유희화하여 5가지 자원화 시설, 5가지 주민편익시설, 5가지 평택 무형자산을 통합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평택에코센터’라고 해야 시설에 대해 잘 이해하겠지만, ‘에코’라는 일반화된 단어를 좀 더

디자인하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CI를 선정 하였다.

오섬플렉스는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과 한솔이오스가 협력하여 평택시와 민투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오섬플렉스는 2019년 11월 준공하여 평택시 전역의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이며 국내 최초 5통합 ONE-STOP방식으로 신설하였다.

평택 생태에서 태어난 **생생이**



오섬플렉스 전경



지원화시설 구성도

자원화시설 소개

국내 최초 5통합 자원화시설을 갖춘 오썸플렉스의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50톤의 재활용품이 들어와 수선별 과정, 플라스틱 자동화 선별과정을 거쳐 파쇄, 감용과정을 통해 28톤을 선별한다.

폐기물전처리 및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250톤을 반입하여 파쇄, 분쇄, 선별, 건조처리 과정을 통하여 고형연료 130톤을 만들어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SRF열병합시설에서는 폐기물전처리 자원화시설에서 생성된 고형연료 130톤을 처리하여 시간당 25톤의 스팀을 생산하며, 고형연료를 보일러 연소가스로 냉각하고 처리한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는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 154톤과 에코센터 자체 소화슬러지 30톤 총 184톤이 반입되고 있으며, 건조기를 통하여 95톤을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한다.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에서는 음식폐기물의 일반 210톤 중 평택시 전량과 안성시에서 20톤이 반입되며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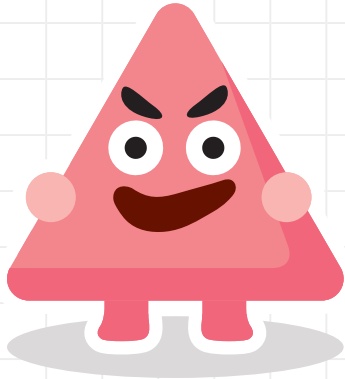
주민편익시설 소개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의 출입로 옆으로 **홍보관**이 있다. 홍보관에는 다양한 스크린터치게임, 키오스크게임을 통해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상식을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피라이더 4D 영상관에 들어서면 흔들흔들 스틸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들이 SRF를 통해 에너지화 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관람할 수 있다.



홍보관

홍보관을 나와 **견학로**에 들어서면 재활용선별시설의 반입장을 유리창으로 관람할 수 있다. 마구 섞여 들어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다시 한번 선별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올바른 쓰레기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는 걸 알게 되면 올바른 쓰레기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마음이 가득 생기게 될 것이다.



평택 장단에서 태어난 **장장이**

검학로를 나와 산들바람을 따라가다보면 **‘왓쌔!야외공연장’**이 있다. 야외공연장은 약 150명이 착석할 수 있는 잔디좌석과 앰프시설과 그늘막이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다. 버스킹이나 야외행사를 원할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이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다.



게이트볼장

왓쌔! 야외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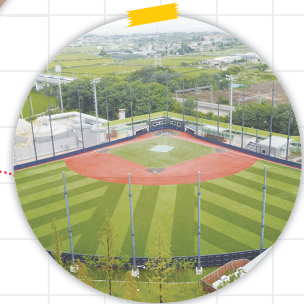


나무계단을 따라 널따란 옥상공원으로 가면 **어린이 종합놀이터**, **게이트볼장**, **주니어야구장**이 멋지게 구성되어 있다. 게이트볼장은 연령대를 고려하여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이며, 주니어야구장은 관내 지역 야구팬들을 중심으로 우선 예약이 가능하다.



종합놀이터

주니어야구장



워터파크

옥상공원과 오섬워터파크를 이어주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오섬의 최고인기 시설인 **오섬워터파크**가 위치하고 있다. 오섬워터파크에는 유아용 바나나슬라이드와 콤비네이션 슬라이드 2코스, 25M 4레일의 경영풀, 시원한 폭포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대형버킷풀 등이 있다.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담한 워터파크이다. 워터파크 2층에는 휴식과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오섬마켓**과 소금방, 황토방, 불가마방으로 꾸며진 **찜질방**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다목적스포츠센터인 실내체육관**이다. 실내체육관의 규모는 471㎡로 배드민턴 네트, 농구골대가 준비되어 있고, 널따란 무대 강단과 앰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퍼포먼스가 가능한 조명탑과 대형스크린을 통해 단체행사를 위한 대관이 가능하다. 현재는 평택시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평택 평야에서 태어난 **평평이**



쓰레기문제가 심각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섬플렉스가 평택시에 신설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더욱이 오섬플렉스는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이겨내고, 친환경적 주민편의시설을 갖춰 평택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사별**

구분		이용시간	비고
실외 체육시설 *(화~일) 운영	야구장	10:00 ~ 21:00	예약:매월셋째주 대관신청접수
	게이트볼장	10:00 ~ 18:00	"
	야외공연장	10:00 ~ 18:00	"
	공원 모래놀이터	10:00 ~ 17:00	자율개방
실내체육관 *(화~일) 운영	실내체육관	09:00 ~ 22:00	예약:매월셋째주 대관접수
	농구교실(주말)	09:00 ~ 13:00	회원제:분기별 접수
	배드민턴교실(주말)	13:00 ~ 17:00	회원제:분기별 접수
오섬워터파크 *(화~일) 운영	워터파크	10:00 ~ 17:00	홈페이지 참고
	수영강습	06:30, 19:30	홈페이지 참고
홍보/견학 *(월~금) 운영	홍보관, 견학로	10:00 ~ 17:00	홈페이지 예약
	스핀라이더	10:00 ~ 17:00	홈페이지 예약

※ 정기휴관일 : 월요일

※ 매주 일요일 전시설 운영시간 : 09-18시 마감 (고객이용시간 17시까지)

※ 문의 : 031-662-8024, 070-8874-2444 / www.5someplex.com



평택민속놀이보존회 일동

사라진 평택백중난장굿을 찾아서

김종수 평택민속놀이보존회장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기존 진행방식은 경연대회 형식으로 대규모 관객이 운집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을축제형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심사는 지역현장심사로 진행되었다. 심사기준은 작품작의 전통성 및 작품작에 대한 이해도, 전승의 충실성, 참가자들의 기량 및 숙련도, 관중의 호응도, 현재성이었다. 이러한 심사기

준을 통하여 우수문화원(11개) 중 대상(1개)팀은 한국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며, 2~11위는 내년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정된다.

2021년 11월 28일(일), 웃다리문화촌에서 경기도민속예술제가 개최되었다. 평택민속놀이보존회는 평택에서 과거에 행해졌던 백중난장굿을 고증 및 재현을 통하여 선보였다. 그 결과, 최우수상(2위)로 선정되었다. 지금부터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백중난장굿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래	평택 백중난장은 음력 7월 15일에 '세 벌 김매기'가 끝난 후 머슴을 쉬게 하는 풍속이었다. 이 날을 백중(百衆), 백종(百種), 백중절(百種節), 중원일(中元日), 망혼일(亡魂日) 등이 라고도 했다.
발굴경위	백중난장굿은 정기적으로 장날 외에 임시로 열리는 장날에 벌이는 농악이다. 백중날 장날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조선시대 전국 5대 놀이패인 '평택진위패'의 전문적인 기예와 굿을 선보였다. 평택지역에 주로 명절을 맞아 '파일난장굿', '백중난장굿' 등의 난장을 열었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사라졌다. 이렇듯 평택민속놀이 보존회는 평택지역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고자 평택 백중난장굿을 재현했다.
지역에서의 가치	농악은 고대 농경 전통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풍년을 기원하고, 개인과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해 제의를 행하였다. 예부터 평택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농악이 타지역보다 발전하여 농악의 놀 거리와 볼거리들이 풍성하다. 하지만 최근 평택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회적 간접자본이 확대됨에 따라 도농복합지역이었던 평택시가 도시화로 변화하면서 소멸과 쇠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평택의 민속놀이에 대해 보존·계승·발전하는데 가치를 두어야 한다.
공연의 구성 및 진행과정	평택민속놀이보존회는 지역주민과 전문 풍물단 40명으로 구성했다. 공연의 구성은 지역주민이 장터상인과 장터행인의 역할을 하고, 평택진위패 역할은 그동안 평택농악을 재현하고 계승 발전해온 전문가들이 맡았다. 공연의 진행과정은 당굿(사방굿)-난장-장터밧기-판굿놀이-줄타기-대동굿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날의 경기도민속예술제
함께 보실까요? 소사릴



평택박물관 미리보기

박혜원 평택시 학예연구사

우리가 보통 만나는 박물관의 외면이 '전시'라고 하면, 그 내면에는 '유물' 수집과 관리가 있다. 문제는 이 유물과 관련된 일은 겉으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직 개관하지 않은 평택박물관(25년 개관 예정)의 경우 수집된 유물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지면으로 소개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 평택문화원에 감사하다.

아주 오랫동안 박물관에서는 주로 역사성과 희소성을 가진 유물을 수집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런 수집 활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수집 범위를 확대해 20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역사자료, 현대 물질문화 산물, 현대 예술품까지도 수집하고 있다. 일부 박물관에서는 현재와 평범한 일상, 그리고 현재 사람들의 생활사와 관련된 유물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생활유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의 삶과 문화, 역사,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물은 수장고 안에 보존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박물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



2021년 평택시 최초의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기증·기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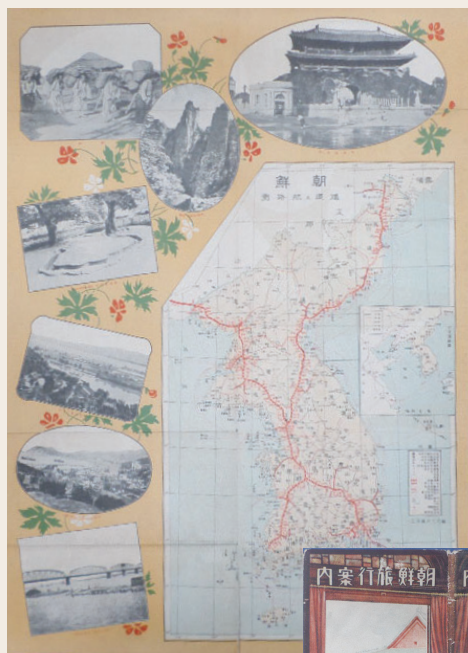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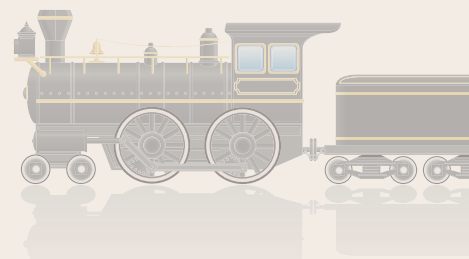


2021년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제2차 유물 기증식

특히 지역 박물관에서는 실제 지역민들이 사용했거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상의 물건들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 활동은 지역민과 지역사회, 박물관 사이의 협력 구조를 생성해 낼 수 있다. 평택박물관의 유물수집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대단한 유물이 아닐 수 있지만, 평택 지역의 변화와 지역민들의 삶을 담은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조선여행안내, 조선총독부철도국 발행, 1927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1905년, 평택역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당시 역사는 마을도 형성되지 않은 논밭에 자리했으나 철도가 들어서고 식민지배를 위한 전략기지로 활용되면서 평택역 인근은 근대도시로 변모했다. 일제는 철도를 통해 조선이 근대화 및 문명화되었다는 점을 선전하고자 철도여행 관련 홍보도 전개했다.

대표적인 홍보물이 조선철도여행안내서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기념품으로 제작했던 이 안내서는 1927년에 간행되었으며, 당시 70전에 거래되었다. 안내서는 전국에 부설된 경부본선, 경인선, 경의본선 등 선로와 각 선로별로 정차하는 역을 세분화하고, 역 주변 지역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안내서는 평택지역을 '조선 중부 최대의 쌀 생산지이며 집산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 평택은 일제강점기 당시 주요 쌀 생산지였을 뿐 아니라 쌀의 집산지 기능을 담당했다.



우리나라 국토 개발 계획도, 1960년대

1965년 평택지구다목적농업개발사업이 추진됐다. 평택지구다목적 농업개발사업은 기존 개발방식과 다른 하천 연안 일대를 포함한 개발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970년 12월 30일 평택지구 다목적 농업개발사업 기공식과 아산만방조제를 착공했다. 아산만방조제의 축조는 평택지역의 농어업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온 큰 사건 중 하나이다.



주한미군이 평택에 주둔한 지난 70여 년 간 평택의 지역사회는 주한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해왔다. 엇갈린 이해관계도 이어졌지만, 평택에서 주한미군과 상생하고 주권을 찾고자 했던 여러 노력들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다.

1971년 8월 미군 상대 한국 직업여성 300여 명이 팽성읍 안정리 캠프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미군 장병과 주민 간의 마찰로 인해 안정리 마을에 미군들의 출입이 제한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군들이 다시 마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였다. 미군을 두고 엇갈린 이해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아픈 과거이다.



팽성읍 안정리 K-6 캠프험프리스 정문 앞
직업여성 300여명의 '빛속의 항의시위' 사진,
1971년 8월 9~10일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정의하는 '박물관'은 교육, 연구, 향유를 위해 인류사회의 유·무형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비영리의 영구적인 기관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박물관이 문화시설, 교육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역시도 그 정도의 역할만을 기대하고 방문한다. 그러나 평택박물관은 시민을 교육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보여주는 시설로만 작용

하지 않고, 평택이라는 도시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모으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장으로 작동해야 한다.

2025년 개관을 준비하는 평택박물관은 무엇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 지금 여기, 변화하는 평택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의 모색이 유물 수집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소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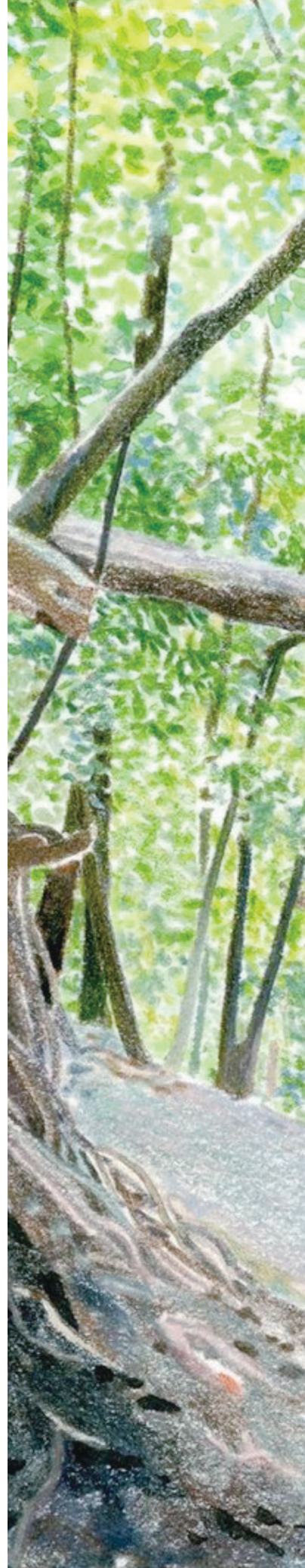
그림이야기

여름향기 삽화전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



학창시절 나는, 존재감 없는 아이였다. 국민학교 1, 2년을 같은 담임 선생님과 보냈는데 2학년 마지막날, 교실 앞에서 마주친 담임 선생님이 “너 몇 반이니?” 물을 정도였다. 나란 아이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집에서 그림을 그릴 때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사람처럼 나에게 집중했다. 그렇게 유년을 보냈다. 어른이 된 나는 공허하거나 힘들 때 그림을 그린다. 그리다 보면 힘든 일도 거뜬하게 넘기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나를 지키고 싶을 때, 나를 배려하고 싶을 때, 나를 찾고 싶을 때 그림을 그린다.



여름향기 삽화전은 그런 시기에 그린 그림들 중, 평택의 여름을 담은 전시회다. 내가 그린 삽화에는 지나간 평택이야기가 담겨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평범한 풍경들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평택이 담겨있다. 아픈 나를 위로 받으려 그림을 그렸지만 정작 사라진 평택 풍경들이 담겨있어 여름향기 삽화전에서 흠칫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다섯 점의 그림을 뽑았다. 이 그림에는 부끄러운 나의 속내와 더불어 평택의 여름이 담겨있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선사한 그림들이기도 하다.



여름

첫 번째 그림은 여름이다. 가장 힘들 때 많이 찾았던 오성면 어느 장소다. 넓은 잔디가 깔려 있어 탁 트인 기분을 선물했던 곳이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다른 곳이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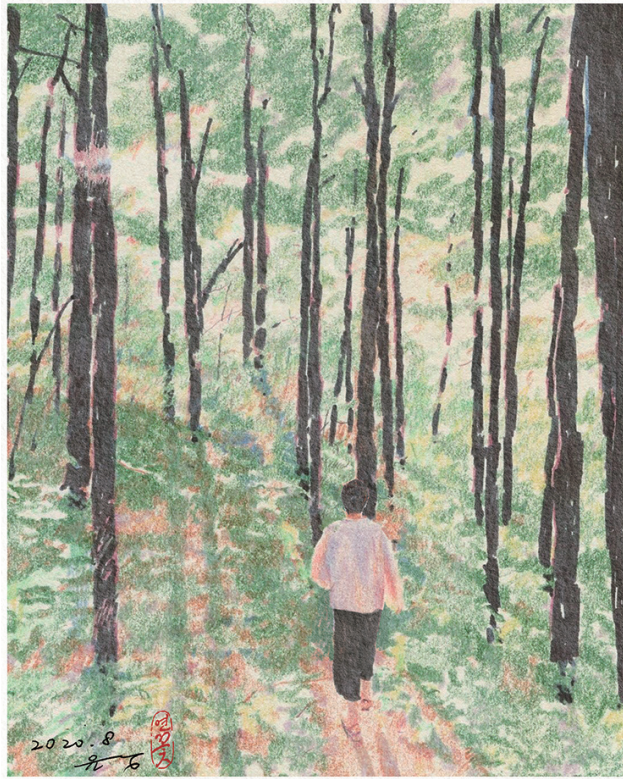
과일가게

두 번째 그림은 과일가게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위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해준 그림이다. 2019년 당시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우리동네 과일가게다. 나와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평택역사이기도 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사라지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려준 그림이다.

세 번째 그림은 사라진 옛집이다. 평성 송화리에 있던 작은 집은 이제는 허물어지고 없다. 여름 한나절 이곳을 지나갈 때면 편안함을 주던 곳. 이제는 그림으로만 남아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울컥해하며 이 그림을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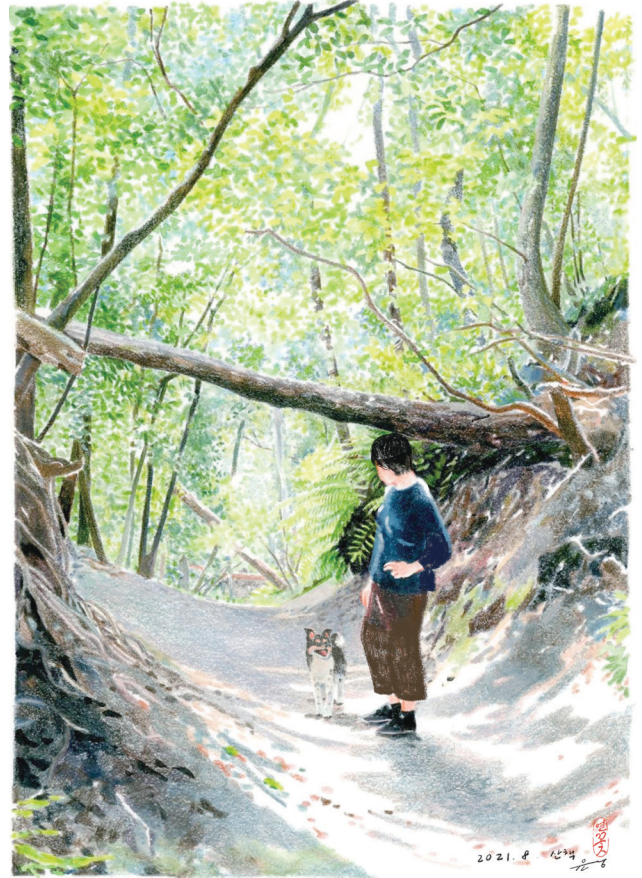


사라진 옛집



걷다

네 번째 그림은 걷다. 마음이 무거울 때 한없이 걸었다. 걷고 나면 벅차오르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그리고 싶었다. 담아낼 수 없었지만 나 스스로에게 대견함을 선사한 그림이다. 이곳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장소다.



산책

마지막 그림은 산책. 여전히 평범한 오늘을 그리고 짧은 글을 쓰며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있는 내 모습이다. 뭔가 편안하고 조용하며 머물고 싶은 그림이라 생각이 들어 뽑아 보았다.

화려한 성과를 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뛰어난(주인공 같은) 활동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매일매일을 꾸준히, 정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평범한 오늘을 그리고 짧은 글을 쓰며 직업활동가로 생활예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소사별**

평택현 관아 터 표지석

안내판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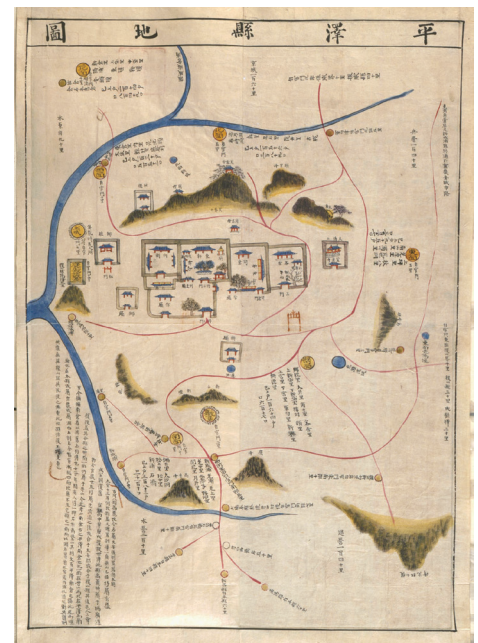
팽성읍행정복지센터 앞 평택현 관아 터 표지석과 표지판

이곳은 조선시대 평택현 관아(官衙)가 있던 곳이다. 평택현은 객사리에 읍치(邑治)를 두고 팽성을 대부분을 관할했다. 삼국시대에는 하팔현(河八縣)으로 불렸으며 고려 때 평택현(平澤縣)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895년 갑오개혁 때 직산군 경양면 지역인 본정리, 노양리, 신대리 일대를 편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위군에 통합되면서, 부용면과 서면으로 나뉘었으며, 1934년 두 면(面)을 통합하여 팽성면(彭城面)이라고 했다. 팽성(彭城)은 평택현의 별호(別號)이다.

객사리는 평택현의 읍치이다. 조선시대에는 읍내면 대정리, 향교리, 객사리, 빙고리였다가 1914년 객사리(客舍里)로 통폐합하였다. 객사리에는 평택현의 관아(官衙)와 객사(客舍), 향교(鄕校)가 있었다. 관아에는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東軒), 살림집인 내아(內衙), 좌수와 별감이며물던 향청(鄕廳), 아전들의 집무실인 작청(執廳, 作廳), 회계를 담당하던 공수청(公須廳), 장교들이 머물던 장청(將廳)과 군기고(軍器庫), 죄를 다스리던 형방청(刑房廳), 노복들이 머물던 관노청(官奴廳), 그리고 사창(司倉)과 감옥(監獄)이 있었다. 팽성읍행정복지센터는 동헌(東軒)터로 추정되며 나머지 관아는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소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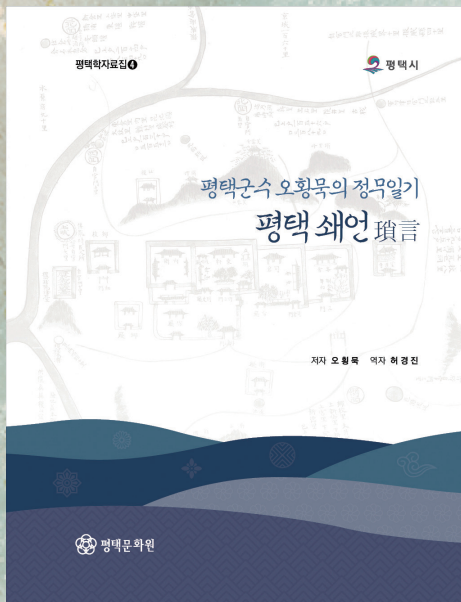
안내판



평택현지도(1872)

러일전쟁기 평택을 기록하다

이승원 수원대학교 강사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쇄언

오형묵(吳弘默, 1834~1906)은 무반(武班)출신으로, 41세가 되던 1874년 무과에 합격하여 정선(1887)·자인(1886)·함안(1889)·고성(1893)·지도(1896) 등에서 수령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이 중 『평택쇄언(平澤瑣言)』은 그의 마지막 관직생활을 평택군수로 지내던 시절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일기이다.

지금까지 오형묵의 기록에 대해서는 1888~1894년간 경상도 자인·함안·고성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작성하였던 기록을 중심으로 19세기 향촌사회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구조와 지방관의 일상과 업무에 대해서 연구되었지만, 20세기 초 오형묵의 평택군수 시절의 기록을 통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평택쇄언』은 앞으로 20세기 초 지방수령의 업무와 일상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평택쇄언』이 기존 오형묵의 기록들과 구분되는 점은 바로 러일전쟁기간 동안 기록된 일기라는 점이다. 평택군수를 역임하던 1902년 6월부터 1906년 5월까지의 기간은 러일전쟁(1904년 2월~1905년 9월)이 발생하던 기간과 중첩

된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외교에서는 패배했다’는 풍문을 뒤로한 채, 차후 러시아와 결전을 준비하며 1904년 요동반도(遼東半島) 남쪽에 위치한 여순(旅順)의 러시아 군함을 기습공격하여 러일전쟁을 승리하였다.

『평택쇄언』에는 당시 이렇게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함께 대한제국의 현황을 평택군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우선 오형묵은 당시 관리들이 외직(外職)을 선호하고 내직(內職)을 경시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일기를 시작하고 있다.

내직은 ‘중앙직’을, 외직은 지방수령 등의 ‘지방직’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는 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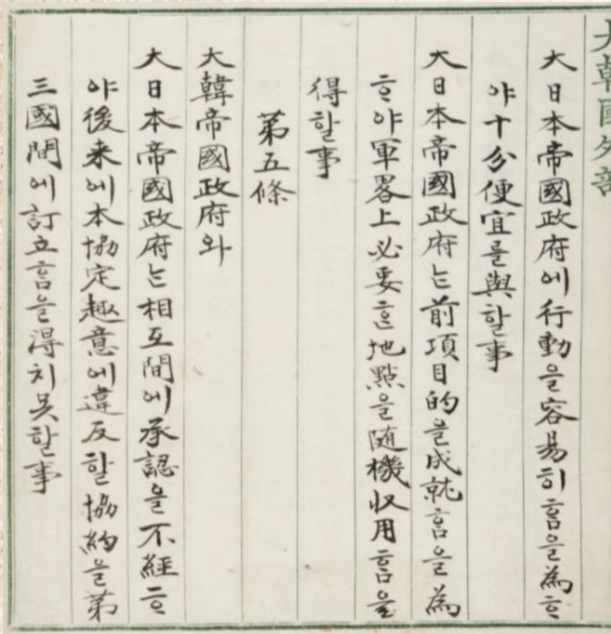
지만 일기가 기록된 1904년 6월 1일은 이미 러일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와 같은 경향이 전쟁상황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러일전쟁기간 평택의 모습은 일기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1904년 6월 12일에는 일본 육군 헌병 히라이 우메키치(平井梅吉)가 통역 교관과 함께와서 오형묵에게 역부(役夫) 만 명을 각 고을에서 모집하기 위해서 왔으며 평택에서도 인원을 모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개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동원하는 모습이 평택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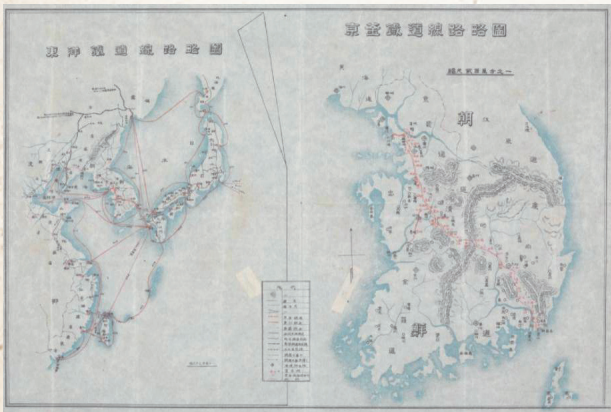
대한제국에서는 이미 러일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전화(戰禍)를 피하기 위해 중립국(中立國, 1903년 11월 23일)



「러일전쟁조전지도[日露戰爭早見地圖]」@국립중앙박물관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제4조에 대한제국은 일본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록됨. @규장각



「경부철도선로약도」 @국립민속박물관

을 선언한 상태였지만, 1904년 2월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하고 인천을 통해 한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에 강압적으로 군사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이때 주요내용 중 하나로 한일의정서 제4조에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이 명시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을 전쟁 수행에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 평택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하지만 평택을 비롯한 인근 군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와 모집에 응하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이와 더불어 『평택쇄언』에는 당시 평택지역 사회와 행정에 대한 모습도 확인된다. 이 시기 평택은 1895년 5월 갑오개혁 당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공부주에 속하게 되어 공주관 찰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기록한 기간에 주로 공주부 관찰사와 교류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 기록을 살펴보면 오형묵은 한성-부산 간 연결된 경부철도를 타고 이동하는데, 1905년 1월 1일 개통된 경부선은 평택에서 하루에 오전·오후 두 차례만 운행되다가 5월 1일부터는 하루 4차례로 운행을 늘리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갑오개혁 이후에 정부에서는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향회제도(鄉會制度)’를 실시함으로써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원 이외에 ‘향장(鄉長)’등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평택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 전쟁수행에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원모집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오형묵은

각 면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상의하는데 이때 ‘향약(鄉約)’에 의하여 이를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향약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수령이 향약에 의거하여 향장을 비롯한 면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상의하는 모습은, 갑오개혁 이후 향회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구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 시기 평택지역의 주요한 현안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각 면의 대표자들이 상의하여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밖에 당시 오형묵은 통복포(通伏浦)에 위치한 역에서 내려 관아로 가기 위해서 군물포(軍勿浦)에서 나루를 건

너서 관아로 돌아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현재 평택 관아가 있던 자리로 비정(批正)되고 있는 팽성읍행정복지센터의 인근에 있는 망한사(望漢寺, 現 자비사(慈悲寺))가 평택을 방문한 인물이 유숙할 수 있는 ‘객사(客舍)’처럼 사용되고 있는 기록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평택사(平澤史)의 관점에서 이 시기 평택지역 사회모습을 정리할 때 참고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오형묵의 『평택쇄언』은 20세 초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와 이에 대한 평택사회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사벌**



군물포가 위치하였던 군문교 일원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일제강점기의 흔적과 냉전체제의 마지막 현장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남산리 CPX병커 남측출입구 첫 번째 공간



남산리 CPX병커 지상 모습

평성읍 남산리 CPX 훈련장 지하병커

평택시 평성읍 일대에는 1942년에서 1945년 사이 일본해군이 평택항공기지 (현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하면서 구축했던 방공호가 남아있다. 객사리 부용산 방공호, 함정리 선말산 방공호와 현재 미군이 쓰고 있는 남산리에 있는 CPX훈련장 병커이다. CPX훈련장 지하병커는 일본제국주의 침탈의 상징적 공간이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공여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전쟁유산이다.

이곳은 송화리 소총사격장과 더불어 우리 평택시가 조속히 반환받아 냉전의 현장에서 평화의 현장으로 사용해야 할 의미 깊은 공간이다.



일본군이 사용했던 주통로



미군이 보강한 시설



미군이 사용했던 통신실



미군이 증축한 공간 통로

CPX병커의 특징

방공호는 보통 굴착식으로 터널을 뚫어 구축하는데 이곳은 평탄한 지형 특성 상 콘크리트 병커 구축 후 흙을 덮고 위장하여 만든 병커로,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다양한 병커의 중 처음으로 발견된 유형이다. 일제강점기 구축된 부분은 미군이 증축한 병커의 넓은 공간과 높은 천장과 달리 좁고 긴 통로와 볼트 (연속 아치)에 의한 공간구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미군사 용기의 건축적 특징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한 사례이다.

CPX 훈련장 전경





CPX 벙커 모식도

붉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본군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며, 파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군에 의해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소사벌**

대자연의 위엄을 고스란히 담은

『4인의 독도 작가』展

강수진 웃다리문화촌 팀장

수만 번 읽이 쳐도 잊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갈매기 울음으로 배를 채우고

낮은 내의 속에 솟아있던 절망이

춤이 되어 일렁이던 동해의 물결을

함께 부르던 그 날의 그 노래를

- 편부경, 독도의 노래2 -



「4인의 독도 작가」展 포스터

기억하고, 알아야 할 땅 독도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애뜻하고 그리운 곳 중 하나는 ‘독도’가 아닐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 그러나 변화무쌍한 기상으로 날씨가 허락해야만 입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

웃다리문화촌에서는 4인의 작가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독도 展이 2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렸다.

전시는 15년 넘게 수십 차례 독도를 방문한 4인의 작가들이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천혜의 비경과 풍부한 보물을 품고 있는 독도의 대자연을 보여주었다. 독도의 모습은 회화와 사진은 물론 영상과 학술 연구 자료로 담아냈

으며, 전시를 통해 460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신비롭고 다양한 독도의 생태계를 볼 수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관람객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웃다리문화촌은 독도 展에서도 관람자 참여형 전시 연계 프로그램 ‘독도 클레이모빌아트, 독도 컬러링, “독도야! OOO” 마음 표현하기’를 진행하며 많은 관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를 다녀간 관람객들이 전시와 체험을 통해 다시금 ‘독도를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새기며 독도와 마주하였기를 기대해본다.



웃다리문화촌 SPACE 3, 4

회화로써 그 기록 독도展

첫 번째 전시는 작가 이정재의 작품으로 기록주의로 본 독도회화 작품을 선보였다. 보고 느끼고 호흡하는 현재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작가는 미술이라는 표현 매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 미시적인 미학이나 미술론을 덧붙이고 싶지 않으며, 그저 관람객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작가는 제안한다.





윗다리문화촌 SPACE 5

아리랑 독도 생태연구와 영상의 기록展

두 번째 전시는 독도를 자원과 생태학적으로 연구해 온 작가 김지연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독도의 생태와 다양한 어종을 새롭게 찾아 생물자원을 확대한 기록과 연구의 결과물로 수중에서 직접 촬영한 수백여 종의 독도 심해 생물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독도에 대한 과제를 고민한다.



윗다리문화촌 SPACE 6

사진으로써 그 기록 독도展

세 번째 전시는 독도를 15년 동안 20여 차례 탐방한 작가 이만욱의 눈보라 속의 독도, 심원의 독도 등 장엄한 독도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작가는 오늘의 독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독도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 긴 시간의 현장을 기록하였다.



웃다리문화촌 SPACE 9

독도野 영상 기록展

네 번째 전시는 세계 곳곳의 바다를 누비며 자연 생태계 영상을 촬영하는 감독 김동식의 영상을 볼 수 있었다. 독도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독도 본연의 생태계 그대로 1년여에 걸쳐 카메라에 담은 '독도 해양 다큐멘터리 독도 野'(포항MBC제작)를 상영하였다. 영상과 더불어 독도에서 처음 확인된 국내 미기록종인 얼룩망둑의 연구 자료도 만나 볼 수 있었다.



앞으로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폭넓은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소사랴**



2021 평택문화원 직원 월례 교육

직원이 강사이파 수강생

경영지원부

평택문화원 직원교육은 연초 보조금 규정 및 근태 관련된 교육과 비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이를 강화하여 직원교육을 매월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월례 교육은 직원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이며,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부서 간 사업 진행과 협조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하였다.

강사는 모든 직원이 강사가 되었다. 한 직원이 강사 되면 나머지 직원은 수강생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제는 강사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관심 및 역량에 맞춰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업무 연관성과 지역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평택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의 장기적인 발전과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렇게 진행한 월례 교육은 2021년 교육 8회와 워크숍 및 평가 1회를 진행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월별 교육 주제 및 강사

월	주제	강사 / 소속
2	평택지역을 이해하는 문화 키워드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3	슬기로운 조직 생활	강수진 경영지원부
4	평택의 지리와 지명	황수근 문화사업부
5	통신의 이해	조건희 웃다리문화촌
6	고고학과 매장문화재	강하늘 문화사업부
7	회계의 이해_회계지능 기르기	유언주 경영지원부
9	미술관 밖으로 나온 살아있는 서양미술사	최인경 웃다리문화촌
10	스포츠와 문화	기우찬 웃다리문화촌
11	상담의 필수 기술	최희련 경영지원부
12	워크숍 및 평가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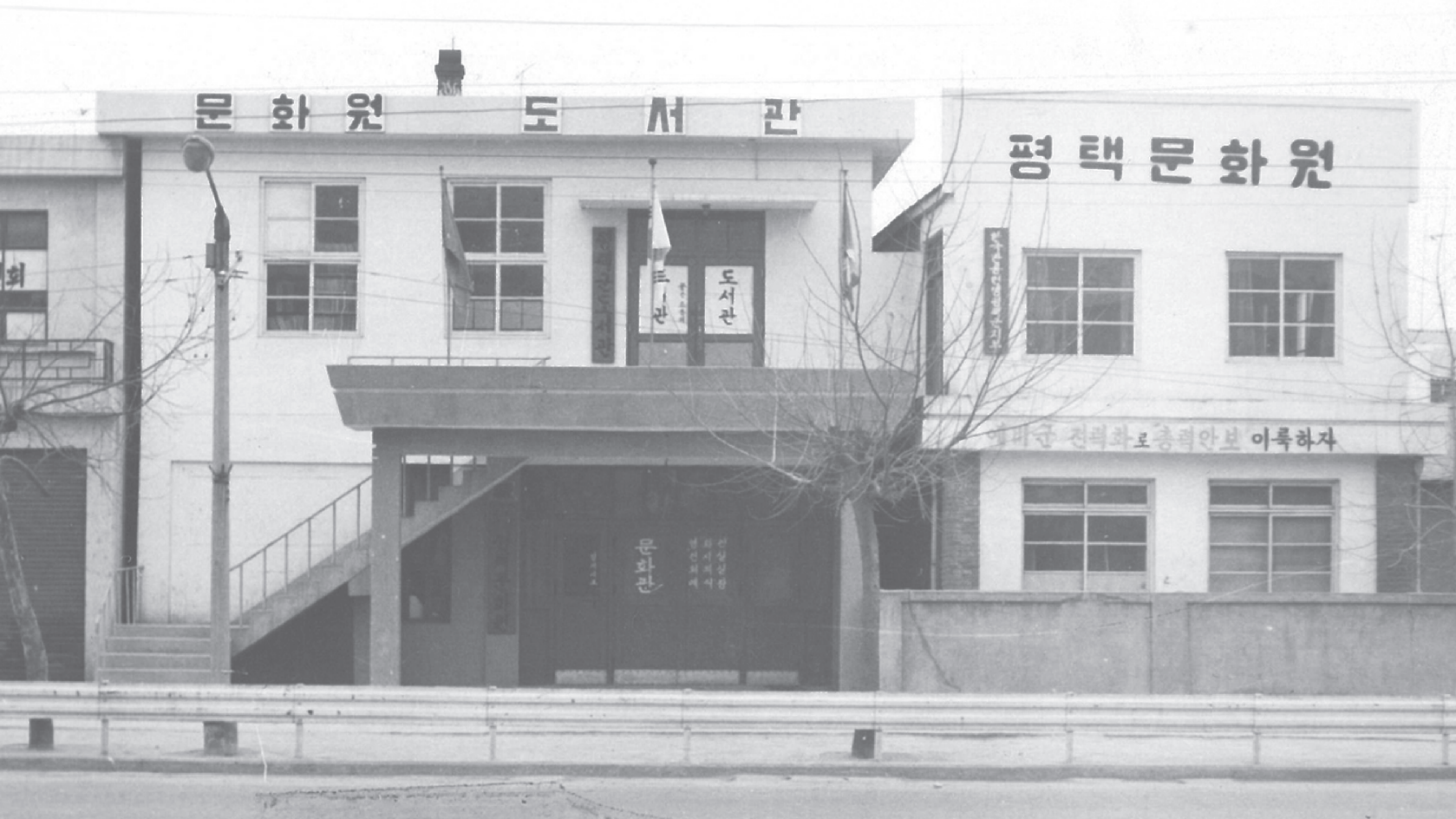
2021년 월례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12월에는 워크숍과 평가를 하였다. 강사로서는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과 공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강자로서는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강의를 준비한 직원의 역량을 다시금 이해하게 되어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와 보완점을 개선해서 2022년에는 더욱 발전적인 월례 교육을 시행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를 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평택문화원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도록 하겠다. **소사별**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을 위한 첫 걸음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

유언주 경영지원부 팀장



평택문화원 원사(1971)



평택문화원 원사의 과거와 현재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의 과거와 현재

평택문화원은 1953년 사설문화원으로 시작하여 1971년 재일거류민단 부녀회의 재정 지원과 당시 민형식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력으로 평택문화원을 건립했다. 이렇게 건립된 평택문화원은 영사실, 회의실, 도서관을 갖추고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문화시설이 전무했던 평택에 지역민을 위한 문화, 교육, 복지를 위한 유일한 시설로 이용되어왔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3개 시·군(평택군, 평택시, 송탄시)이 통합되면서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평택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평택문화원 원사를 기부채납하고 1986년 평택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다

시 한번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30년이 넘게 독립문화원 원사를 갖지 못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인 평택문화원이 법적 공간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택문화원은 '실버문화학교', '전국향토문화공모전', '한국민속예술제' 등 각종 경연 및 공모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으며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 중 최상위권의 일 잘하는 문화원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평택농악, 평택민요와 평택시 예절관의 산파 역할을 하며 지역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의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이에 평택문화원은 원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는 최창목, 박철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재덕, 박성복, 강길복, 이신복, 안도향, 박용민, 최시영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는 2020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제안서 및 로드맵을 구축하고 타 문화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1년 3월에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적은 예산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한 대전서구문화원을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건립될 평택문화원 원사의 부지, 건축물 형태, 시설 활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2021년 3월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지원되어 5월부터 시행사인 지식산업연구원과 함께 평택시 내 원사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건립 후보지로는 ①안재흥 역사공원 내 부지, ②용죽공원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③브레인시티 내 문화시설 용지, ④고덕국제신도시 내 주차장 이렇게 4곳이다.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와 지식산업연구원은 위의 네 곳을 기준으로 환경, 입지분석,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평택문화원의 원사 건립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월에 개최된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

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의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평택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 욕구 향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독 문화원 원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내 사례 조사를 통해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의 적정 도입 규모와 사업비를 산출화하였고 4곳의 건립 후보지 중 안재홍 역사공원 내 부지가 평택문화원 원사의 위치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원되었다. 이에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는 계획했던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 추진 일정에 맞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의 바램

평택시는 인구가 57만으로 경기도 내에서 인구 규모가 아홉 번째로 큰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은 총 18개로 시민들의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평택

문화원은 1953년에 개원하여 지역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산파 역할을 해왔다. 평택문화원으로부터 자생력을 갖춰 독립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다움을 통한 문화강국을 비전으로 지방문화원을 ①지역 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 ②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③소실 위기 지역 기억저장소 기능 강화, ④지역 문화·역사 교육 분야 역할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새로운 문화원 원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새롭게 건물을 짓고 입주하는 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택문화원이 평택지역 문화의 중심축이 되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 원사 건립 추진을 통해 평택문화원이 법적인 문화기반시설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당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소사별**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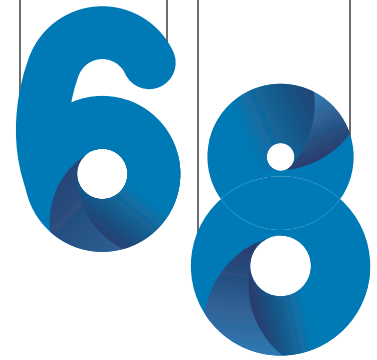
평택문화원 창립 68년 (법인설립 50주년) 지상중계

최희련 경영지원부 주임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포럼

기념포럼은 2021년 12월 13일(월),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기념포럼은 지방문화원의 태동과 현황, 평택문화원의 변천사를 조명했으며 이를 통해 독립 문화원 원사 건립의 필요성과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하며 평택문화원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진갑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평택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와 문화원의 과제’라는 주제로 평택 정체성 변화에 따른 평택시, 평택문화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평택시는 문화원의 인력 및 인건비를 타 기관 사례 참조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독자적인 기획으로 평택문화를 만들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발제자인 박성복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장은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 평택문화원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평택문화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목적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평택문화원은 평택 문화자원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평택시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곳인 국제화도시인 만큼 지역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평택문화원 원사와 향토자료관 건립이 평택문화원의 과제라고 했다.



강진갑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박성복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장

종합토론은 '문화도시 그리고 평택문화원의 역할'의 주제로 김동숙 평택시의회 의원이 토론했다. 평택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제시했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장민 평택시 문화예술과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문화원 원사 현황과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방향인식과 공론화 노력'의 주제로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장이 토론했다. 평택문화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평택문화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향성을 정해야 할 때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시·군·구 시행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장민 평택시 문화예술과장



김동숙 평택시의회 의원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장



종합토론



질의응답



기념포럼 단체사진

지역문화예술가와 함께 한 기념식

기념식은 2021년 12월 15일(수),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연은 소리사위예술단이 만춘만춘곡, 축제, 사랑가 등을 선보였다. 소리사위예술단은 경기도지정(2018-7호) 전문예술법인으로 우리 전통과 창작을 기반으로 한 가(歌)·무(舞)·악(樂) 중심의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종합예술단체로서 평택의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화합의 장에 어울리는 단체였다.



소리사위예술단

다음 시상식은 감사패, 사진공모전 상장, 문화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소중한 자료를 평택문화원에 기증하여 연구 및 활용에 도움을 준 자에게 수여했다. 수상자로는 ▲평택문화원장 감사패로 평택문화원 이사 김진수가 수여했다.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공모전 시상은 기념일을 맞아 전국민 대상으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수여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평택시지부장상장으로는 코스모스 한들한들 김정미, ▲평택문화원장상으로는 1974년 아산만 김현옥, ▲모산골저수지 박환우, ▲권관리 황금들판 황보혜, ▲평택시장상으로는 향수 신원금이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에게 표창했다. 표창자로는 ▲평택문화원장 표창에 평택시 문화예술과 정보연 주무관과 양상블 秀 대표 허지혜 ▲국회의원 홍기원 표창으로는 소리사위예술단 예술감독 백은희 ▲국회의원 유의동 표창으로는 평택시미술협회 천인안 ▲평택시의장 표창으로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영진 ▲평택시장 표창으로는 평택시문화관 광해설사 김연숙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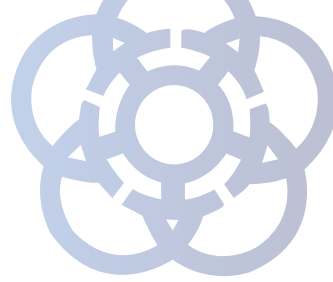
더불어 평택시문화상도 함께 시상했다. 평택시문화상은 향토문화와 창달과 지역 사회 발전, 평택시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사람을 격년으로 선정한다. 이날 수상자는 김은호 前 평택문화원장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평택문화원 이사와 부원장, 원장을 역임하면서 평택시티투어, 웃다리문화촌, 꿈의 오케스트라 등 시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택시 문화예술에 기여했다.





수상자 일동

이보선 평택문화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택시 최고의 영예인 평택시문화상을 수상하신 김은호 前 평택문화원장을 비롯한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인사드리며, 평택문화원은 앞으로 시민 모두의 삶이 문화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은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평택시의회장, 홍기원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참석으로 평택문화원의 창립기념에 대한 축하로 풍성한 행사였다. **소사별**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보선 평택문화원장



기념식 단체사진

제1회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공모전



대상 신원금 / 향수

5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어린시절에 흔하게 보았을 것 같은 현덕면 농촌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평택의 명소인 논 가운데 자리잡은 메타세콰이어가 아름다운 이곳에 농번기에 새참을 나르는 두 아낙의 풍경이 어릴 적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우수상 김태호 / 핑크물리

평택의 명소인 고덕면 바람새마을에서 가득한 핑크물리와 함께





최우수상 황보혜 / 현덕면 권관리 황금들판

추수 바로 전 권관리의 들판이 예쁜 황금색으로 물들어 농부들에겐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황금색 들판과 어우러지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들을 담았다.

제9회 대한민국 삼봉서화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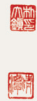
종합대상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청봉 김용범/노천명의 푸른오월

誠其意者毋自欺也
如惡臭如好色此之
謂自慊故君子必慎其
獨也

錄大學句
辛丑夏 清潭朴大鎭



청담 박대진/대학구

부문대상



윤강 연 명 자/회향우서



동하 정 효 섭/이백의 시

4B YOUTH ART COMPETITION 2021



New Jersey State Senator's Award(뉴저지주 상원의원상)
강승민/황홀한 정원



New Jersey State Assemblyman's Award(뉴저지주 하원의원상)
김아인/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소사별 화보



01 2021 평택문화원 제51차 정기총회

02



03



02 2021 평택학연구소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회의

03 2021 정월대보름 진위면 오룡마을 정제



04



05

- 04 2021 청북읍 울복리 당제
05 제13차 평택학 학술대회

06



07



06 제14차 평택학 학술대회
07 2021 우리고장 알기 프로젝트 진위향교



08



09

08 2021 진위향교 오감만족 선비문화축제

09 2021 평택야행



01



02



02

01 - 2021 웃다리문화촌 전시
'산림단지조성을 위한 연구'

02 - 2021 웃다리문화촌 전시
'심심심뽕한산책'

03 - 2021 웃다리문화촌 전시
'페인티드 글라스'



03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길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개원하였으며,

여러 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평택의 고유문화 개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지역사의 조사 · 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문화 관련 자료수집 · 보존 및 보급
- ▶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

▶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 소사별단오제
- 평택시 정월대보름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 웃다리문화촌 운영

- 전시실, 세미나실, 운동장 등 시설 운영/대관
- 기획전시 및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 주말농장

▶ 지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 평택학연구소 운영
- 지역사 발간 및 연구사업
- 마을조사 사업
- 지역사 사료 수집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유산 활용사업
- 평택시티투어
- 평택학시민강좌

▶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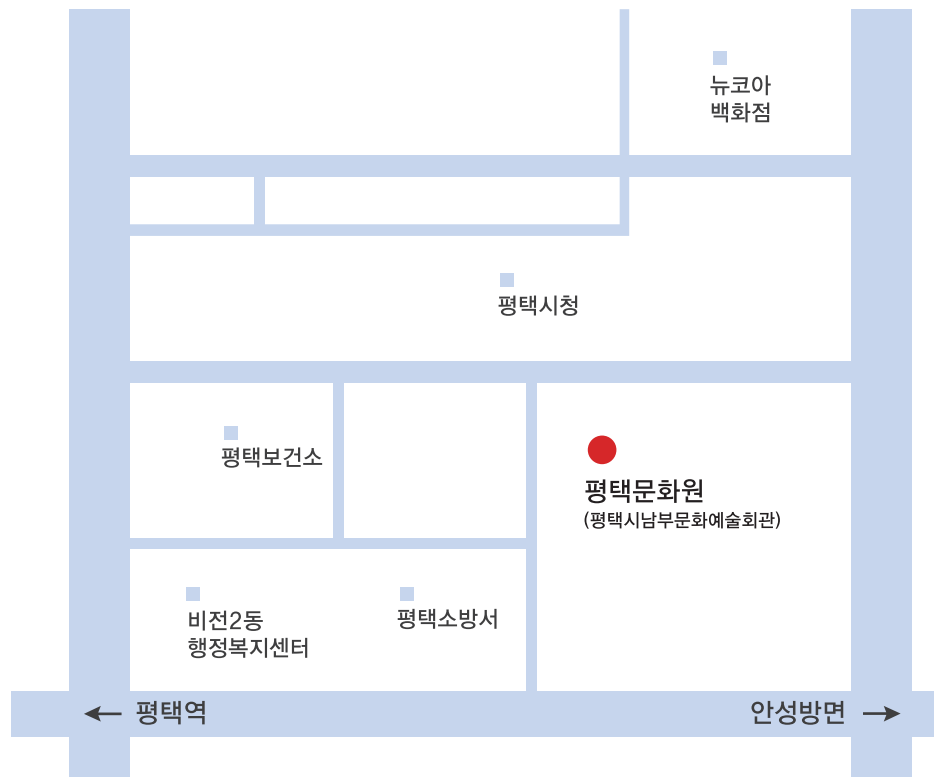
평택문화원의 연혁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3월 1일	제14대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취임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진흥표창(평택문화원장)
2014년 12월 19일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2년 3월 1일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취임(재임 2012. 3. 1~2020. 2. 29)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평택문화원장)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평가 표창 수상(문화부장관상)
2007년 10월 27일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 수상(문화부장관상)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을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3년 7월 28일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재임 2003. 7. 28~2012. 2. 29)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년 7월 27일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평택시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통합 초대원장,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유재호 취임(재임 1995. 7. 27~2003. 7. 27)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남부문화회관 내)
1993년 2월 26일	제7대 평택시문화원장 조중환 원장 취임(재임 1993. 2. 26~1995. 7. 26)
1989년 10월 11일	평택문화원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변경)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평택시종합운동장 내)
1982년 12월 15일	제4~6대 평택군문화원장 김창복 원장 취임(재임 1982. 12. 15~1993. 7. 26)
1978년 2월 25일	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주상 원장 취임(재임 1978. 2. 25~1982. 12. 14)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 인가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제1~2대 평택문화원장 민형식(재임 1971. 2. 2~1978. 2. 24)
1953년	평택문화원 개원(설립자 장순영, 사설문화원)

평택문화원 임직원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원장	이보선	(주)주광에너지 대표이사	이 사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부원장	최창목	(주)대한공업사 대표이사		안도향	前 파우스트어학원장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박용민	로알안경원 대표
	신태식	(주)현대AVC 사장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이재덕	(주)삼보텔레콤 대표이사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감사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황춘미	(주)케이피씨엠 대표
	배우학	베스트인슈&렌트카 대표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안광훈	하나농원 · 하나이벤트 대표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이충원	농업회사법인 서두물양조(주) 대표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유범동	캠프햄프리스 수석 공보관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김복남	여성농업인 경기도 연합회 정책 부회장
친목위원장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김종구	평택가우디미술학원장
이 사	김미영	한상인, 선일유통 대표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최승규	굿모닝병원 행정부원장
	오중근	굿모닝병원 이사		이형범	복합문화공간 화수분 대표
	한상희	(주)동양툴테크 대표이사		홍인석	신성컨설팅 대표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당연직	평택시 국제문화국장
	이필욱	(주)마들렌식품 대표이사	직 원	오민영	사무국장
	유평림	前 평택택시 상무이사		유연주	경영지원부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최희련	
	여운정	금호타이어 원곡대리점 대표		강수진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신송희	
	김혜영	前 평택시의회 의원		박송이	문화사업부
	이신복	교보생명 PB센터장		최치선	
	최창환	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황수근	
	김규동	(주)케이와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강하늘	
	김성환	(주)에이치 코리아 대표이사		엄은영	
	공서구	알리앙스 대표			

평택문화원 오시는 길



대표전화 031.655.2002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제38호 소사별 원고 모집

평택의 종합문예지 <소사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글과 작품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작품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사별>에 실어 드립니다.

<소사별>에 작품과 글을 보내주실 분께

- 원고마감 : 2022년 8월 31일
- 원고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 031.655.2002 전송 : 031.654.8807
이메일 : ptmhw@naver.com

※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
※ 원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을 기부하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평택의 미래가 됩니다.



<생활자료 및 평택관련 자료수집>

의식주생활 의복, 식기류 등

생활기록 사진, 일기장, 가계부, 졸업앨범

새마을운동기록물 등

상업 저울, 바구니, 나무간판, 기념품, 사진 등

각종 캠페인 자료 포스터, 기념품, 사진 등

기타 평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주소 (17901)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031.656.0600

팩스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 기증기탁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조사 후 곧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